

실모 피드백 학습지

실모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학습지 10개 + 여분 2개

실모 피드백 학습지 이용 예시

실모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이 날을 위해 여태 잘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고 그냥 타이밍을 본 겁니다.) 저는 사실 BIS지문 40번 <보기>문제를 찍어서 맞았어요. 이게 틀렸다면 저는 그냥 국어 1등급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칼럼을 쓰며 땀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수능날 40번을 찍은 그 행동이

진짜 실력자의 현명한 판단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전제로 할게요.

제가 못푸는 평가원 문제는 없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고, 사실 평가원 문제들은 시간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일정 궤도 이상 올라가면 누구나 다 푹니다. 난이도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제가 특출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1등급은 4%밖에 못받는 걸까요?

평소에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분들도 막상 수능날 3등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국어 콘텐츠 제작자들이 전부 다 '수능' 국어 1등급일 것 같나요? 지금 당장 유명 국어 강사들을 시험보게 하면 다 100점이 나올까요?

실력이 좋은 것과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자고요.

실모는 본인의 상한선을 올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한선을 올리는 도구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 점수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게. 모든 대비를 해야합니다.

시험장에는 정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 변수들 중에는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도 존재하는 변수도 있고 시험장에서만 존재하는 변수도 있어요. 시험장에서만 존재하는 변수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들고 겪어본다 해도 그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대비를 하는 게 힘들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평소에 공부할 때도 존재하는 변수라도 정복해야 합니다.

왜 실전에선 실수를 하고 본래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못할까요?

여러 변수가 있어서겠죠. 시험을 망하는 방법은 다채로우니까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고등학생 때 수학 과외를 몇 개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랑 둘이서 2:1과외를 받았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잘했어요.

저도 수학은 좀 하는 편이어서 선생님께서 같이 연습문제 풀리면

친구가 해당 연습문제 마저 풀 때 저는 암산으로 다음 개념의 문제를 풀곤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결국 내신 1등급은 누가 받았을까요?

그 친구가 받았습니니다.

저는 3등급이었어요.

이게 재수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재수 때 수능 직전에 본 실모가 96점이었어요.

수능날엔 4등급을 받습니다.

저는 엄청 실수가 잦은 타입이에요.

왜 실수가 생기는지 이유를 몰라서 그냥 태생적으로 이런 줄 알았습니다.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엄청 실수를 해요.

유일하게 물리만 실수를 좀 덜하는 과목이었습니다.

당연히 국어도 마찬가지로였죠.

실전력이 누구보다 약했던 저이기에

삼수 때는 정말 치열하게 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비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거의 모든 비용을 스스로 해결했던 저지만, 파이널 만큼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과목 현강을 듣는 건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효율이 좋지 않아 정말 필요한 과목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국어로 선택했습니다.

왜 국어였냐면,

성적과 상관 없이, 국어 공부에 대한 감을 찾은 건 삼수 때가 처음이었고, 실질적으로 한 번도 좋은 점수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혼자 실모를 보며 좋은 점수가 나와도 제 실력에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를 겪을 수 있고, 시험 스케줄에 강제성, 낮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실모 현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은 제게 잉여 시간이었고, 국어 실모는 아침에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국어 파이널 주간 스케줄이 형성되었습니다.

🕒	MON	TUE	WED	THU	FRI	SAT	SUN
							지난주 해설강의
	지난주 실모 피드백 및 문제점 보완						이번주 현강 실모

위의 계획표 양식은 [칼럼04] 주간계획표를 따릅니다.
 TM101 '저번주'는 '지난주의 방언이래요...' / TM102 '이번주'는 '이번 주로 띄어 써야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파이널 기간 동안 매주 일요일 오전은 제게 수능날이었습니다. 이 하루를 위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합니다. 모든 수를 써서 지난주의 문제점을 보완해요.

여러분, 10주입니다.

10번의 시험.

10번 안에 수능장에 들어가도 자신있는 실전력을 키워야 합니다.

태도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실모를 풀며 독서 지문 독해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죠? 당연히 높은 독해 체력일 것입니다.(=이상)

그러나, 실모를 푸는 파이널 시기에 이런 근본적인 실력을 높이는 것으로만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현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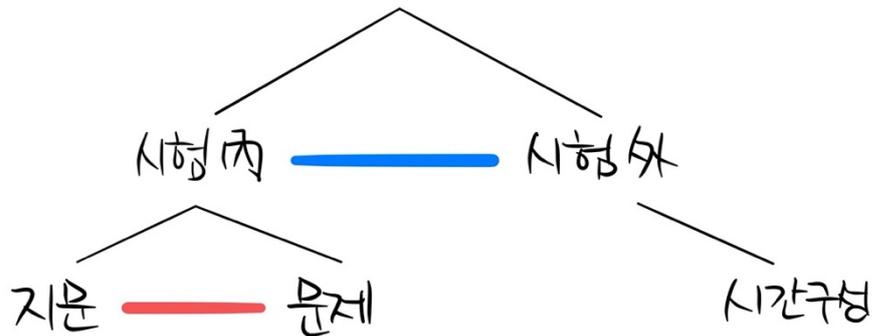


* ~ : 조화

실모를 피드백 태도를 교정할 때 항상 이상과 현실 사이의 조화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상적 상황과 현실의 한계를 파악한 후, 그 사이의 조화점을 찾는 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실모를 분석할 때 저는 아래와 같이 분석의 대상을 나누었습니다.



시험 외적인 것들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간 구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의 다른 변수들은 간단하게 후술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내적인 것들부터 짚겠습니다.

여러분이 실모를 풀고 나서 고민하는 것들 중 대표되는 일부를 선정하였습니다.

제 경험담도 있고요

같이 분석해보며 실모 피드백에 대한 '감'을 익힙시다.

시험 내적 - 01. 지문 독해

*Q.01 지문에 표시한 개념을 문제를 풀며 찾았어야 하는데 찾지 못했어요 ππ.
이럴 거면 표시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상 : 독해를 하며 모든 내용을 기억한다.

현실 : 모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여 표시를 해야 한다.

조화점 :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표시를 한다.

지문 위에 표시를 하며 읽을 거면 그 방법을 매우 구체화시키세요. 일단 본인이 **왜** 이런 문제를 겪는지 알아야겠죠? 평소에 여러분이 지문 위에 표시하는 방식을 봅시다. 개념의 특성에 대한 구분 없이 똑같은 도형을 쓰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라면 뭐가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출제될 확률이 높은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분할 거예요. 개념들이 나열되면 가장 기본적인 정보 처리는 그들 간의 층위를 파악함입니다.

이를 반영한 글이 **[칼럼08] 지문 위 표시법** 입니다.

(<https://orbi.kr/00032156931>)

Q.02 장지문 독해 시 마지막쯤에 부족한 독해 체력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상 : 고난도 지문을 양치기 하여 독해 체력을 높인다.

현실 : 고난도 지문이 항상 도움되진 않으며 남은 시간 동안 무적의 독해 체력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

조화점 : 고난도 지문을 적절히 풀며(하루 한 두 개) 주어진 독해 체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지 고민한다.

장지문을 읽으며 공통적인 문제가 뭐죠? '마지막'에 독해 체력이 바닥난다는 겁니다. 게다가 보통 이런 지문은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경우가 많죠? 저 또한 똑같이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사실 독해체력을 많이 길러 놓는 게 필수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지막쯤 가서 끝이 보이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정신력의 문제가 큼니다. 따라서 전 장지문을 독해하기 전에 마지막 문단 앞에 한 번 쉬라고 체크를 해 놓았어요.

한 숨 고르면서 그간 읽었던 내용을 쓱 훑어보고 정리합니다. 내가 뭘 읽었고 이 내용들이 왜 나왔는지, 정보들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 무엇을 설명할지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했다면 준비 된 겁니다.

길어야 30초.

15초 내외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또, 지난 '6평 시험 전략' 칼럼에서도 말했듯이, omr 마킹과 가채점표 작성 시간으로도 휴식을 취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어 영역

물음에 답하시오.

①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일단 개체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가령 DNA 염기 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해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다.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고발한다.

②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이다. 과거의 후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③로온 개체를 생성할 때도 '나'와 '나'의 되어 있다.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④ 있다.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이다. 세포는 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⑤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⑥의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진핵세포는 핵이 ⑦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⑧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 ⑨기권이 있으며, 그중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를 필수적으로 ⑩가지고 있다.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미토 ⑪세기 초에 제기되었다. 공생발생설 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생물 ⑫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 서도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⑬형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⑭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바환 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⑮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을 쉽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⑯를 이어 가는 과정 중에 플랜티와 ⑰. 인해 종이 진화하고 분화한다고 보는 ⑱원핵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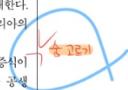
되었다.

공생발생설에 따르면 진핵생물은 원생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고 본다.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의 시작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고 원생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진핵 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세포를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⑳만들어진다.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 세포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인 포린이 존재하고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티오린이 존재한다. 또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 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미토콘 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가 개체 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미토 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핵의 DNA로 옮겨 가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는 것이다. 미토 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되고,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실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에는 37개의 유전자만 있을 정도로 DNA 길이가 짧다.

37.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성과 관련된 예를 제시한 후 공생발생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② 개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후 세포의 생물학적 개념이 확립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후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에 대해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개체의 유형을 분류한 후 세포의 소기관이 분화되는 과정을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개체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한 후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Q.01 선지를 잘못 읽었어요 ππ.

이상 : 선지를 처음부터 꼼꼼히 읽는다.

현실 : 시험 시간은 한정되어있다.

조화점 : 자주 출제되는 선지 형식을 기출을 통해 미리 파악한다.

사실 우리가 수험생이기에 작은 변화가 크게 다가오는 거지, 평가원 시험 문제의 대부분은 이미 형식이 정해진 것들입니다. 기출을 통해 이들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아래 문제를 봅시다.

<p>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p> <p>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p> <p>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p> <p>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p> <p>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 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p>	<p>20.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p> <p>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p> <p>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p> <p>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p> <p>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군.</p> <p>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p>
<p>20.06 금융건전성</p>	<p>19.06 심주지각설</p>

두 문제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서로 다른 두 대상의 입장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28번에선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20번에선 두 대상을 비교하는 것을 물어보네요. 애초에 발문에 ‘비교하여’가 있으니까요. 각 선지가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기로 할 것 같습니다.

<p>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p> <p>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p> <p>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p> <p>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p> <p>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 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p>	<p>20.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p> </div> <p>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p> <p>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p> <p>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p> <p>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겠군.</p> <p>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p>
20.06 금융건전성	19.06 심주지각설

두 대상(A, B)을 물어보는 문제는 선지를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A만 물어본다 B와 달리 A
 B만 물어본다 A와 달리 B
 A와 B 모두

이 다섯가지 경우 중 몇가지만 물어볼 수도 있고 5가지를 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전자는 '심주지각설' 지문의 얘기고 후자는 '금융건전성' 지문의 얘기가겠네요.

일단 저는 이런 유형에선 선지를 위와 같이 물어보는 대상을 설명한 지점에서 끊을 겁니다. 판단의 대상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떤 걸 물어보는지를 표시할 겁니다.

하나의 대상만 물어본다면(28번 ①, ② 선지) 따로 그 위에 표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달리'와 같이 차이점을 묻는다면 두 대상 모두 고려하면서 더 중점을 두는 대상에 주목하기 위해 'B와 달리 A'에선 A위에 세모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와 같이 공통점을 묻는 선지에선 'A와 B 모두' 위에 동그라미를 길게 칩니다. 둘 다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이와 관련해서 실수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단순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단순한 실수라면 여러분이 통제하지 못합니다. 운에 기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시험장에서 겪을 변수를 하나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장에선 변수를 만들면 안돼요.

실모는 시험장에서 겪을 변수를 정복하기 위해 푸는 겁니다.

시험 내적 - 01. 시간 구성

Q.01 시험을 주어진 순서대로 풀자니 나에게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게 맞는 순서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 : 모든 경우를 여러번 도전해보며 나에게 맞는 순서를 찾는다.

현실 : 시험은 분야별로 난이도와 경향이 계속 달라지고 시험을 준비할 기간 또한 제한되어있다.

조화점 : 여태 풀었던 실모들을 분석해 보며 어떤 순서가 가장 범용성이 높을지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를 고려하여 만든 칼럼이 바로 **[TIP!] 국어 시험 전략 : 6평** 입니다.

(<https://orbi.kr/00030685674>)

이 칼럼은 어느 정도 주관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적용해보면서 본인만의 방식을 찾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내적 - 02. 기타 변수들

사람마다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위와 똑같은 형식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숙제입니다. 시험 내적인 요인과 시험 외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칼럼으로 올리기 전까지 스스로 메뉴얼을 만들어 보세요.

Q.HW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을 때 가장 어려운 독서 지문을 마지막에 풀어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선 정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9모 전까지 실전력은 신경 쓰지 말고 '상한선 올리기'에 집중하라 했던 거예요. 실력이 바탕이 돼야 이것들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10월 전까지는 실력이 궤도에 올랐다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며 주의할 점은, 이들은 모두 꿈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진짜 실력.

본 글은 실모 피드백 시 사고의 틀을 갖추게 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꼭 체화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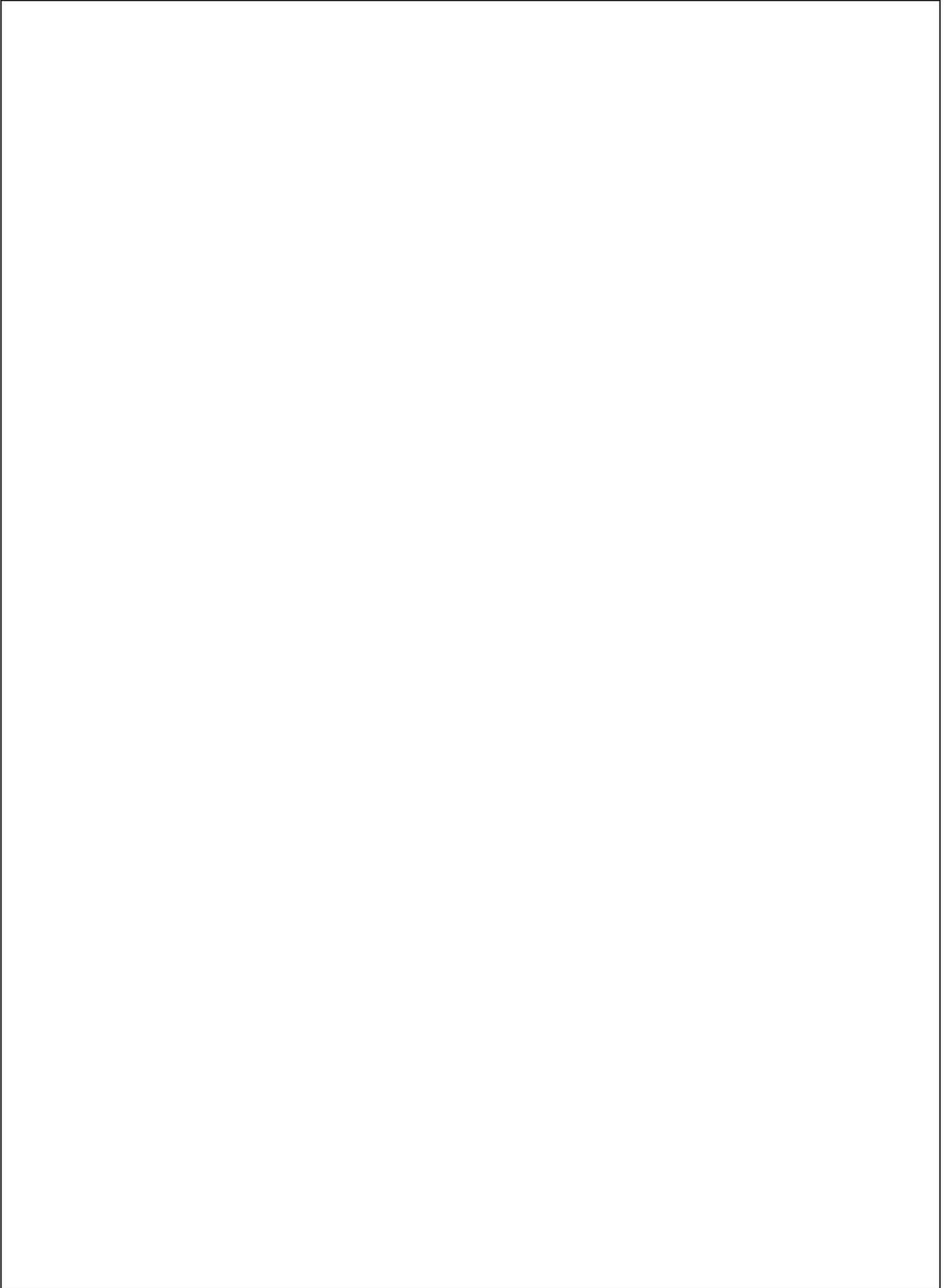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화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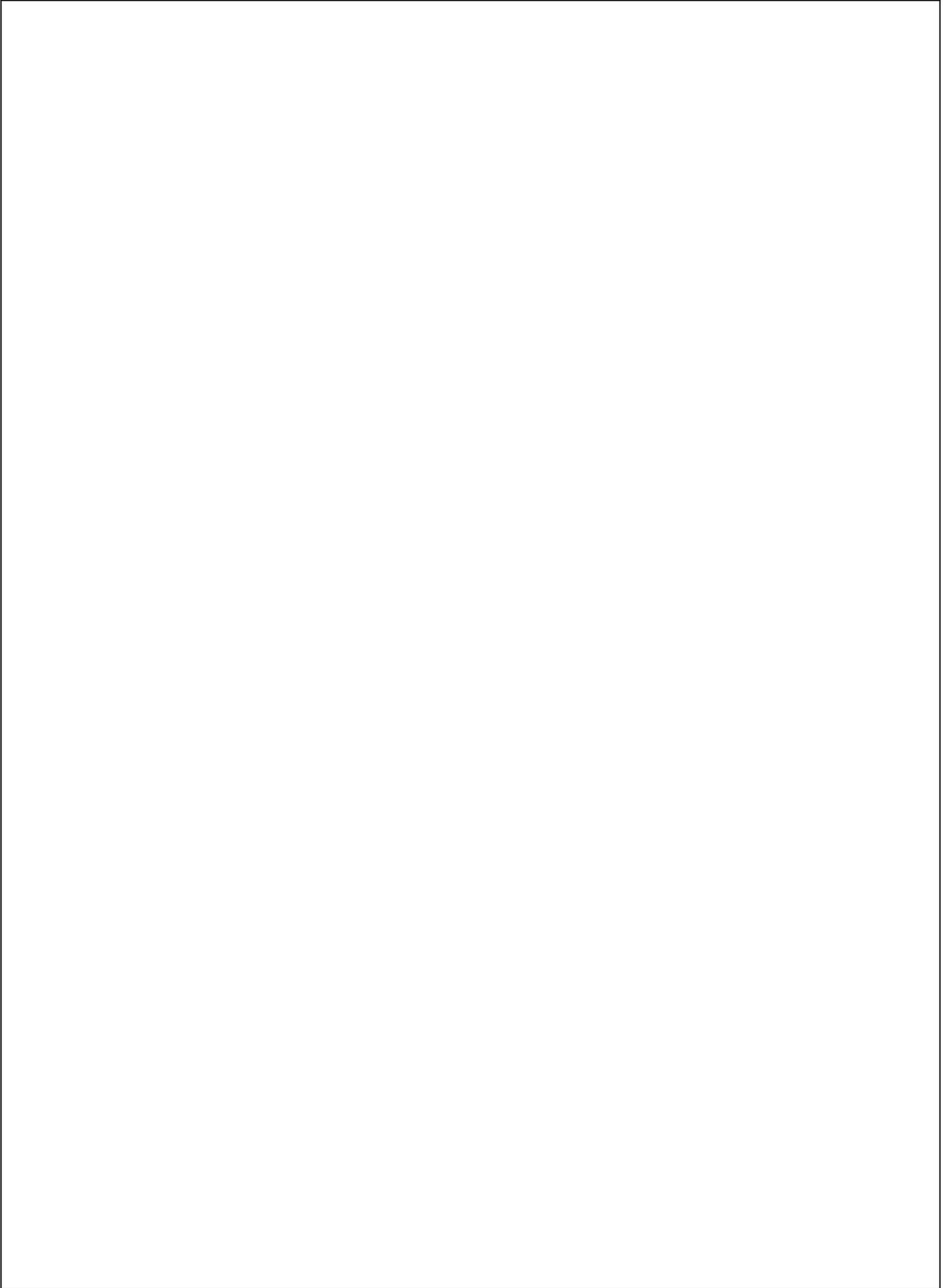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the upper half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a drawing or illustration.

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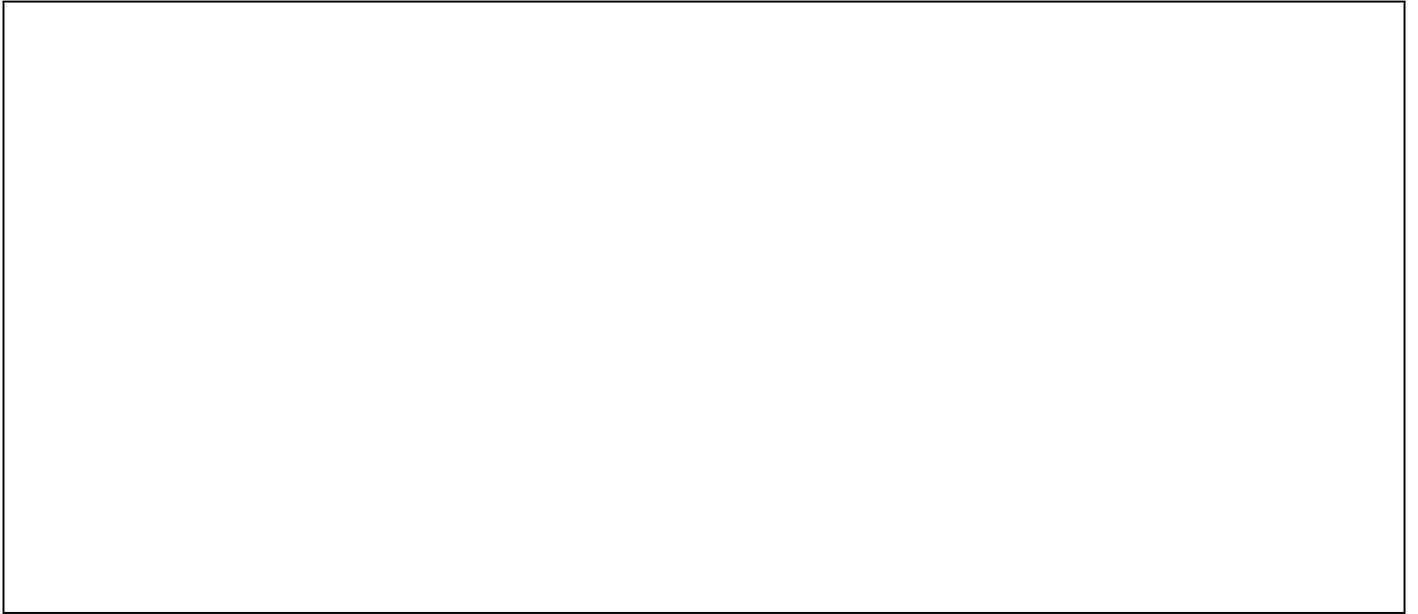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the lower half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writing a grammar explanation or answer.



독서



PLANS AFTER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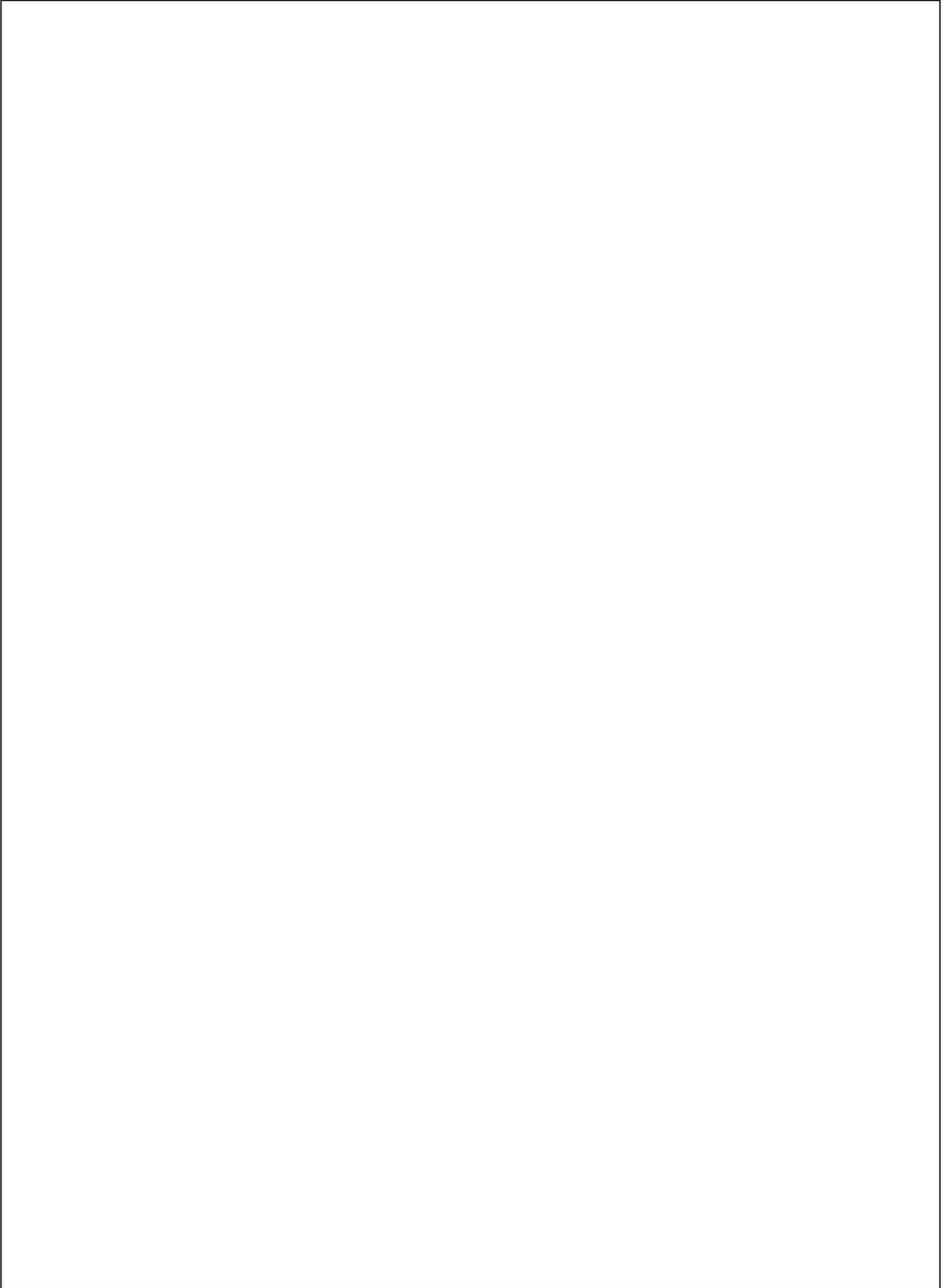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plans after a test. The box is currently blank.

화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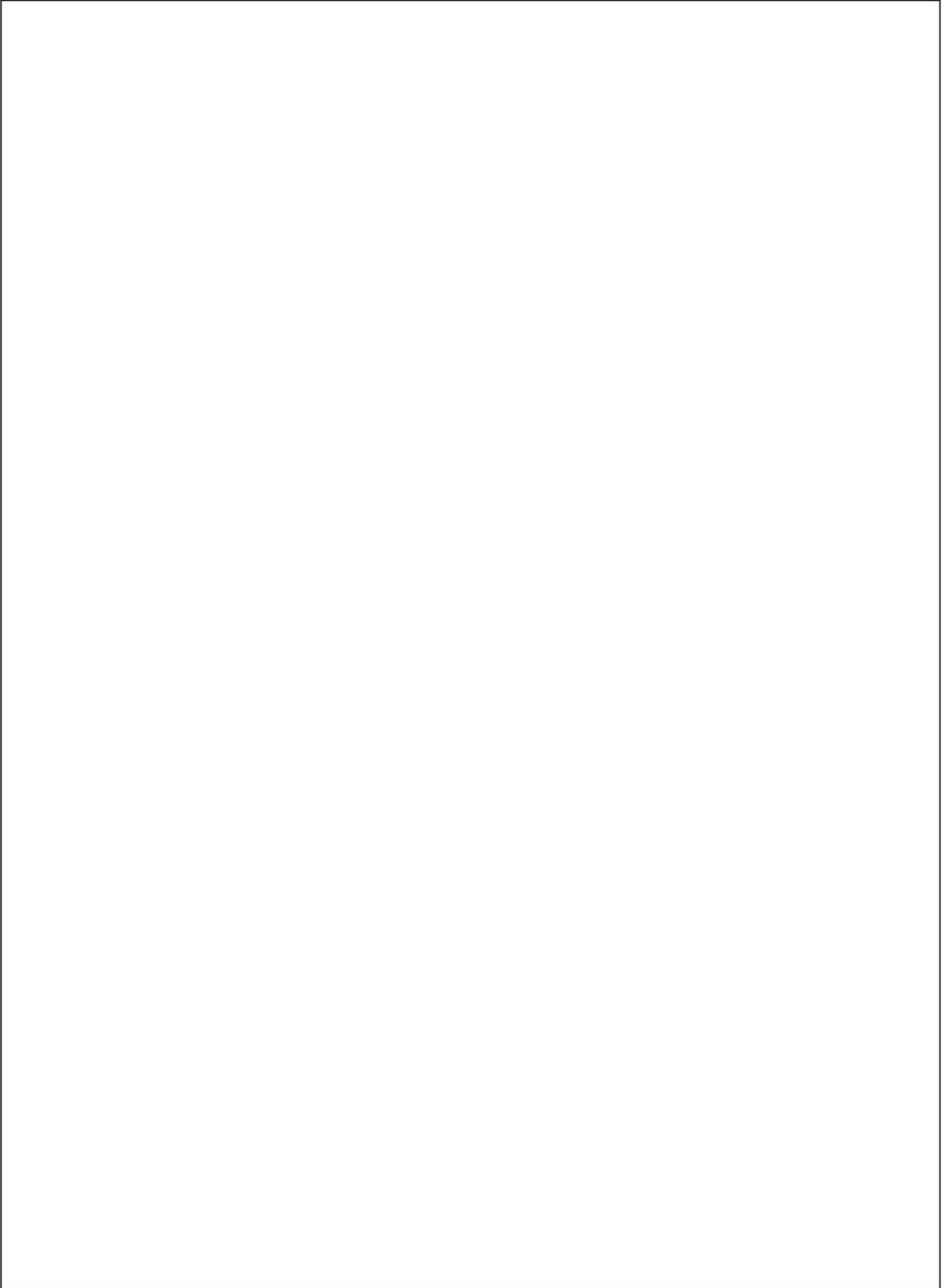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a drawing or illustration.

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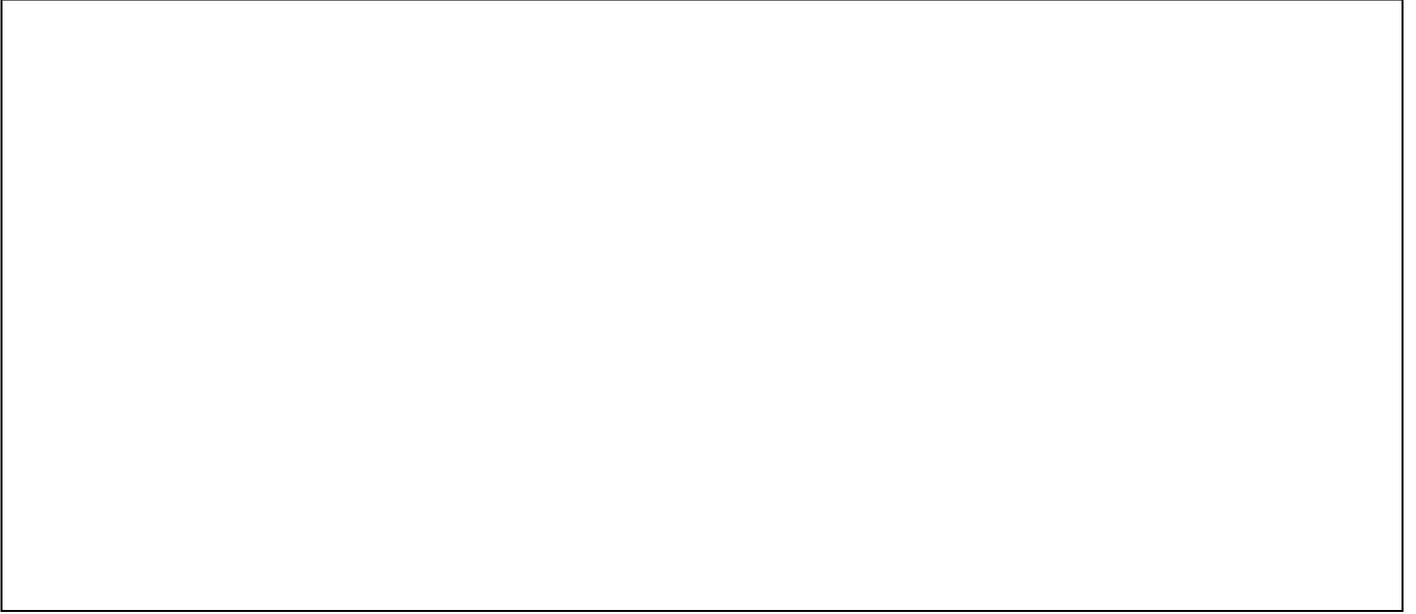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or text.



독서



PLANS AFTER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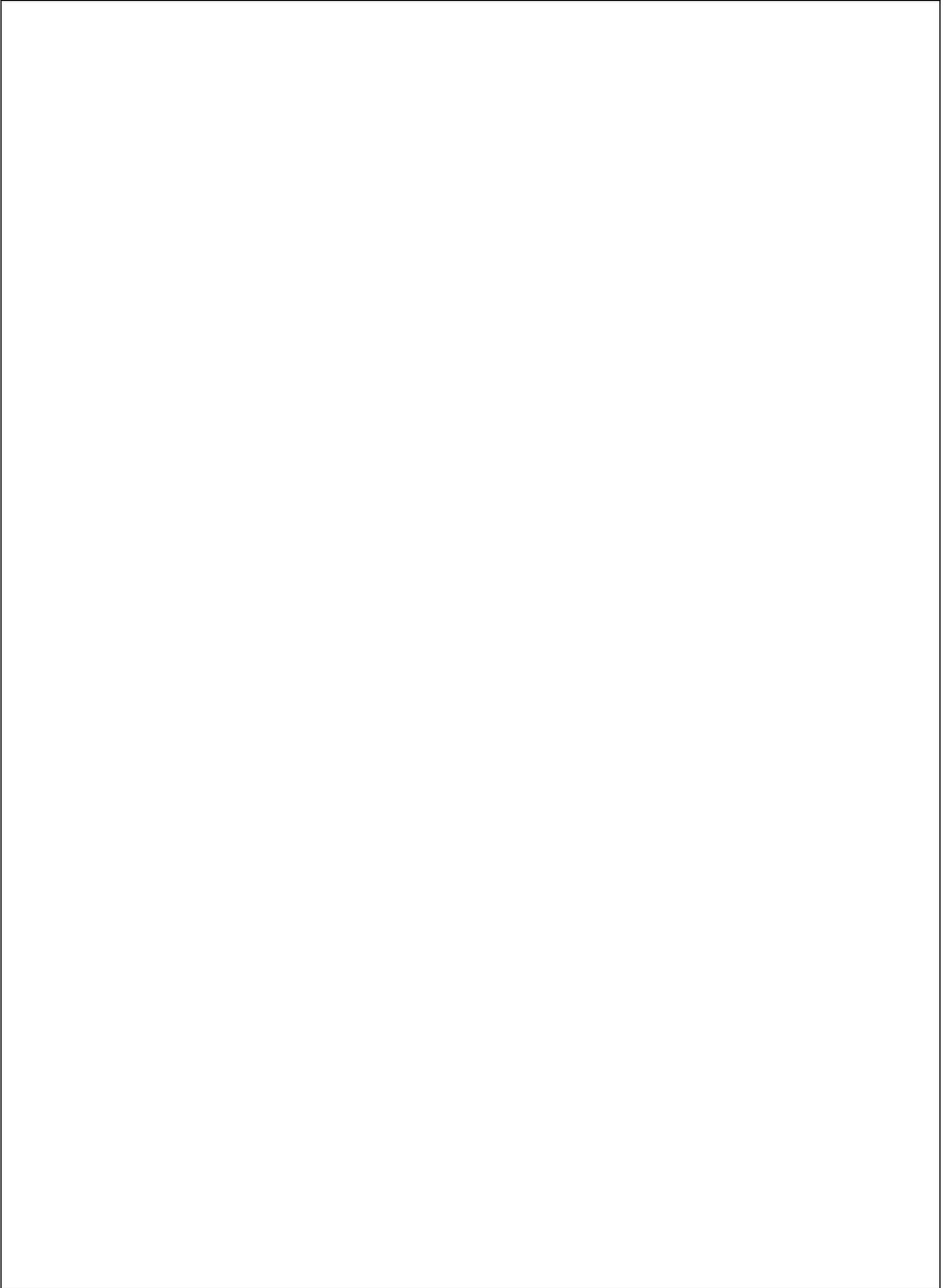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plans after a test. The box is currently blank.

화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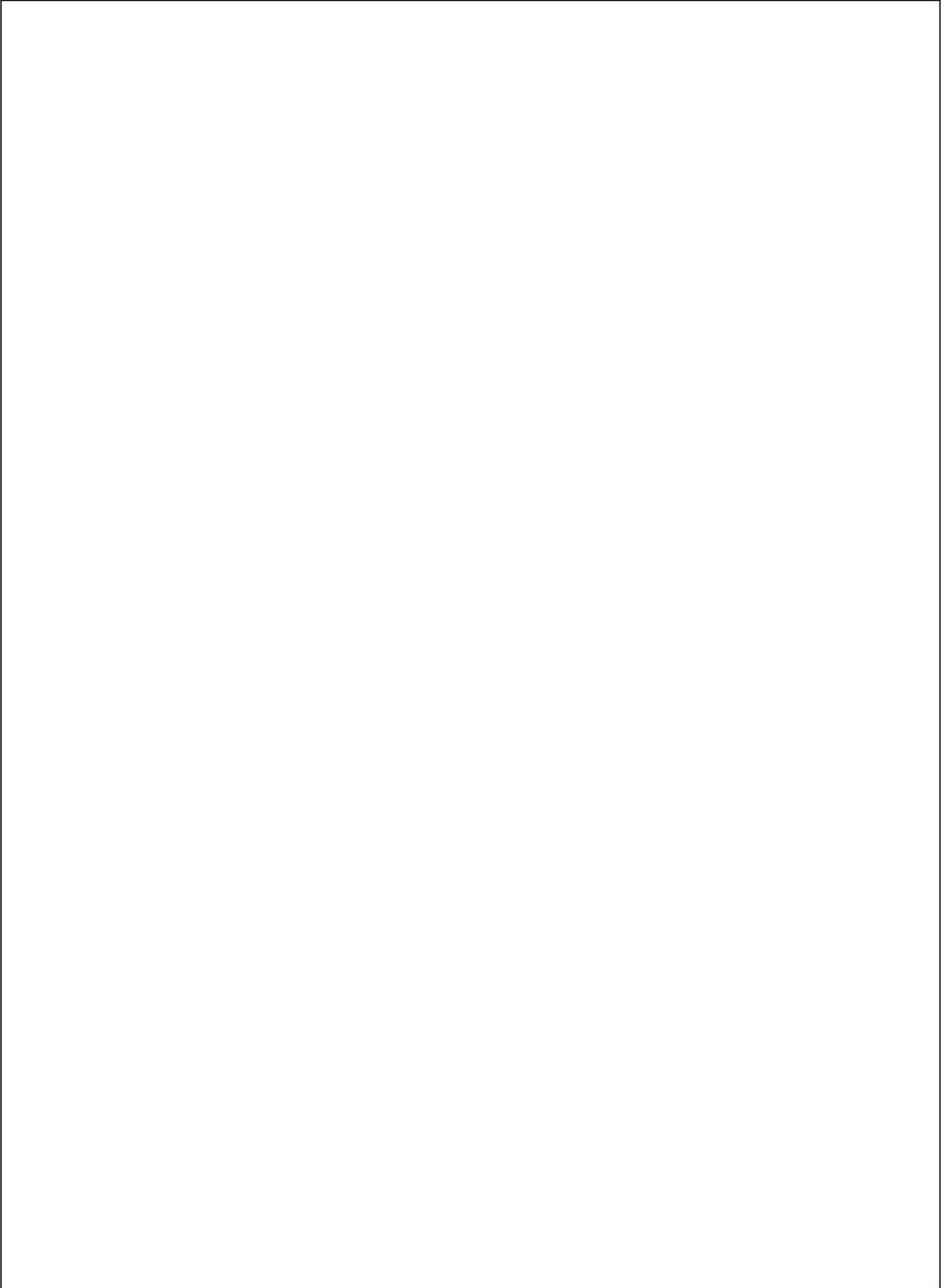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the upper half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a drawing or illustration.

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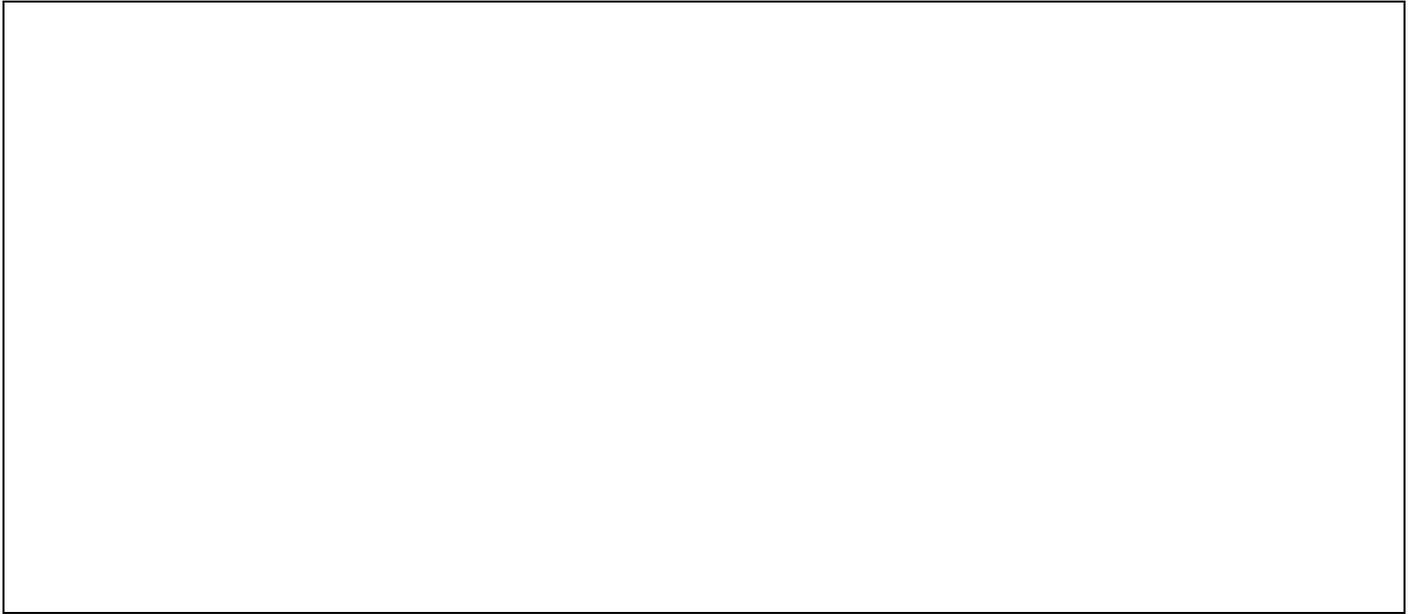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the lower half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writing a grammar explanation or notes.



독서



PLANS AFTER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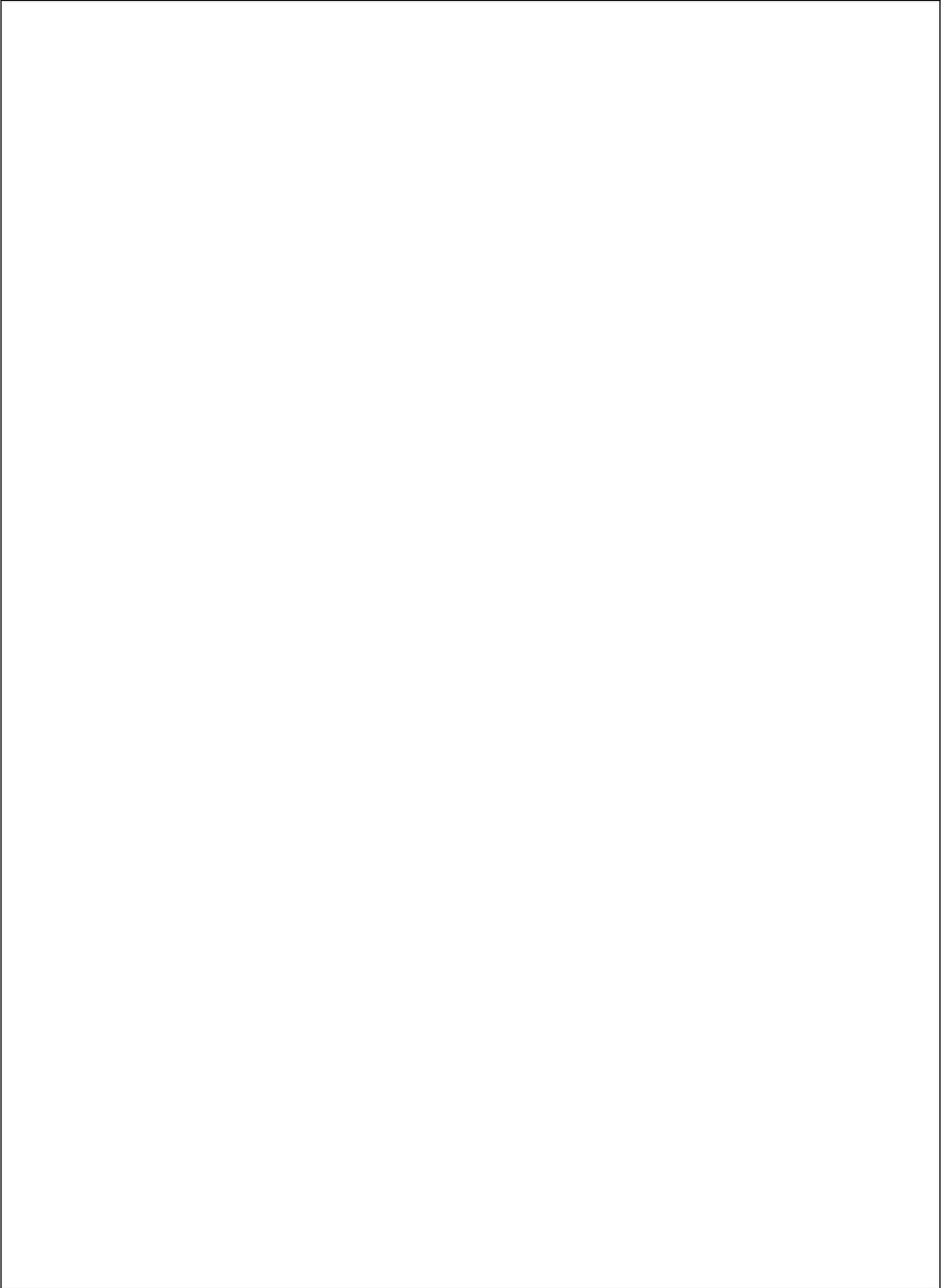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or drawing plans after a test. The box is currently blank.

화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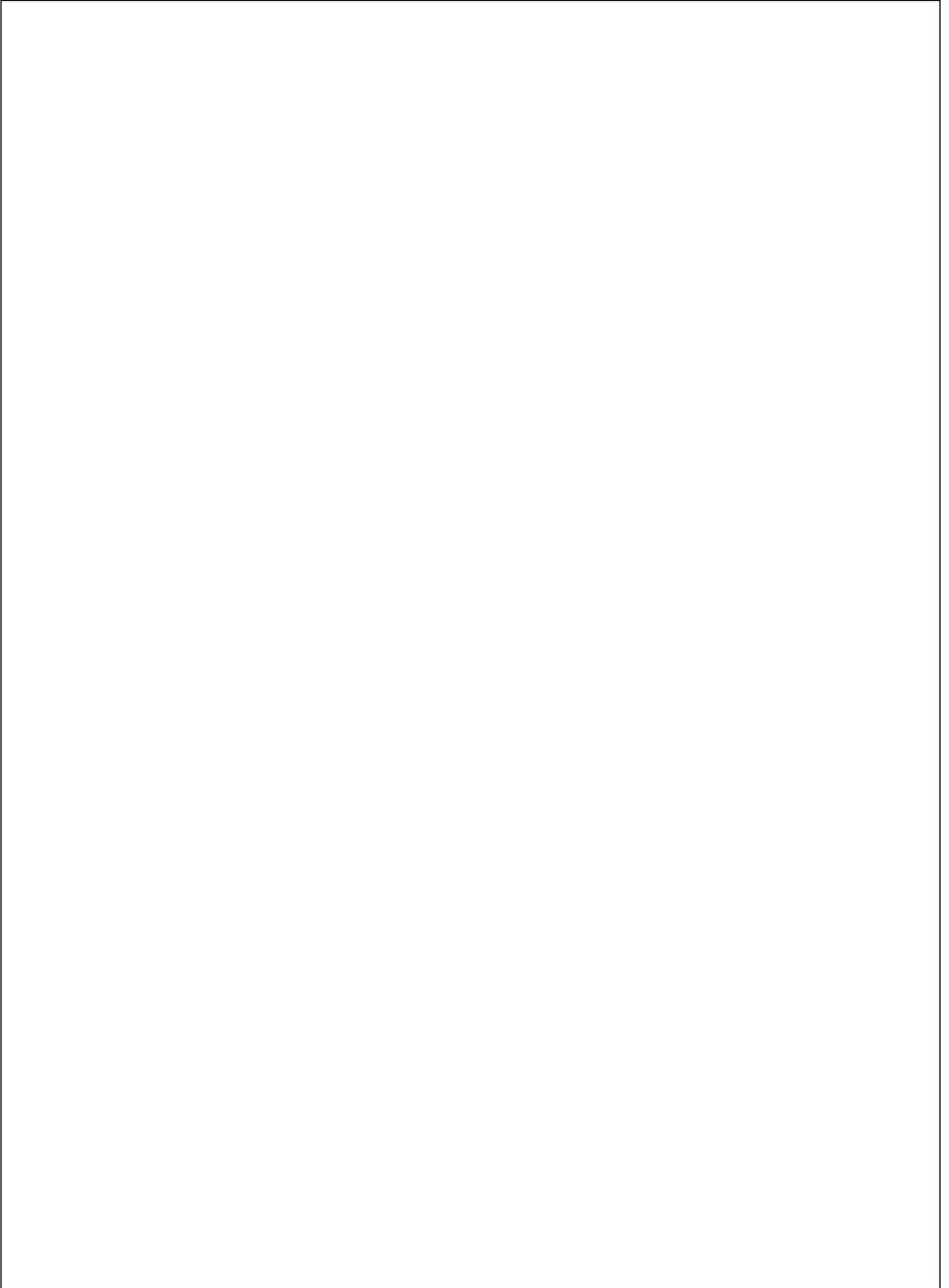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the upper half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a drawing or illustration.

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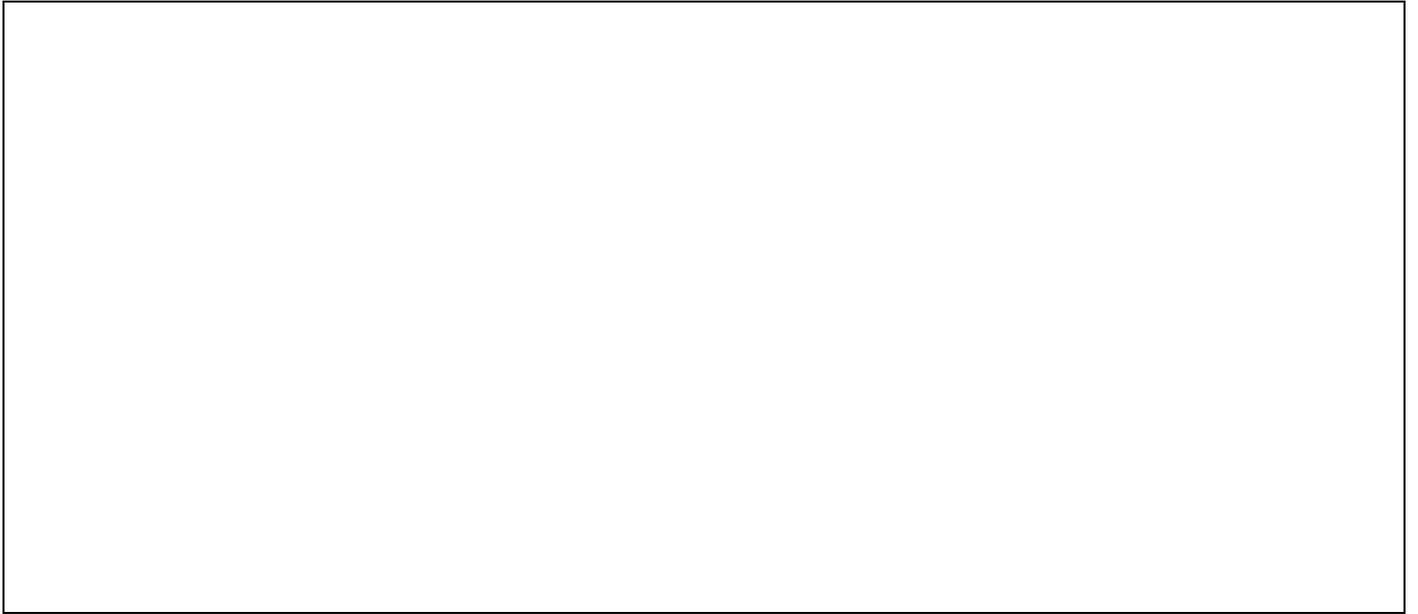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the lower half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writing a grammar explanation or notes.



독서



PLANS AFTER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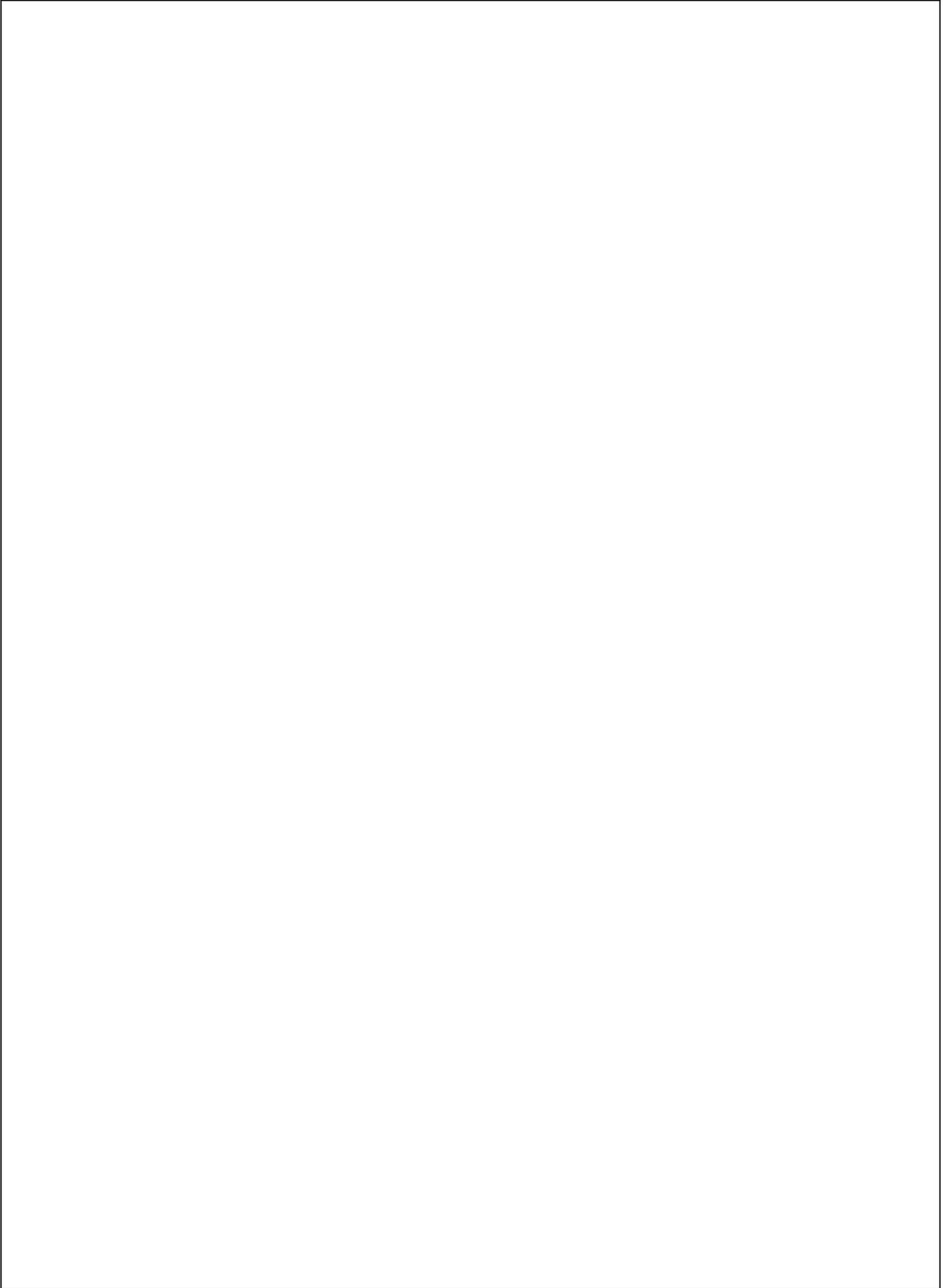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plans after a test. The box is currently blank.

화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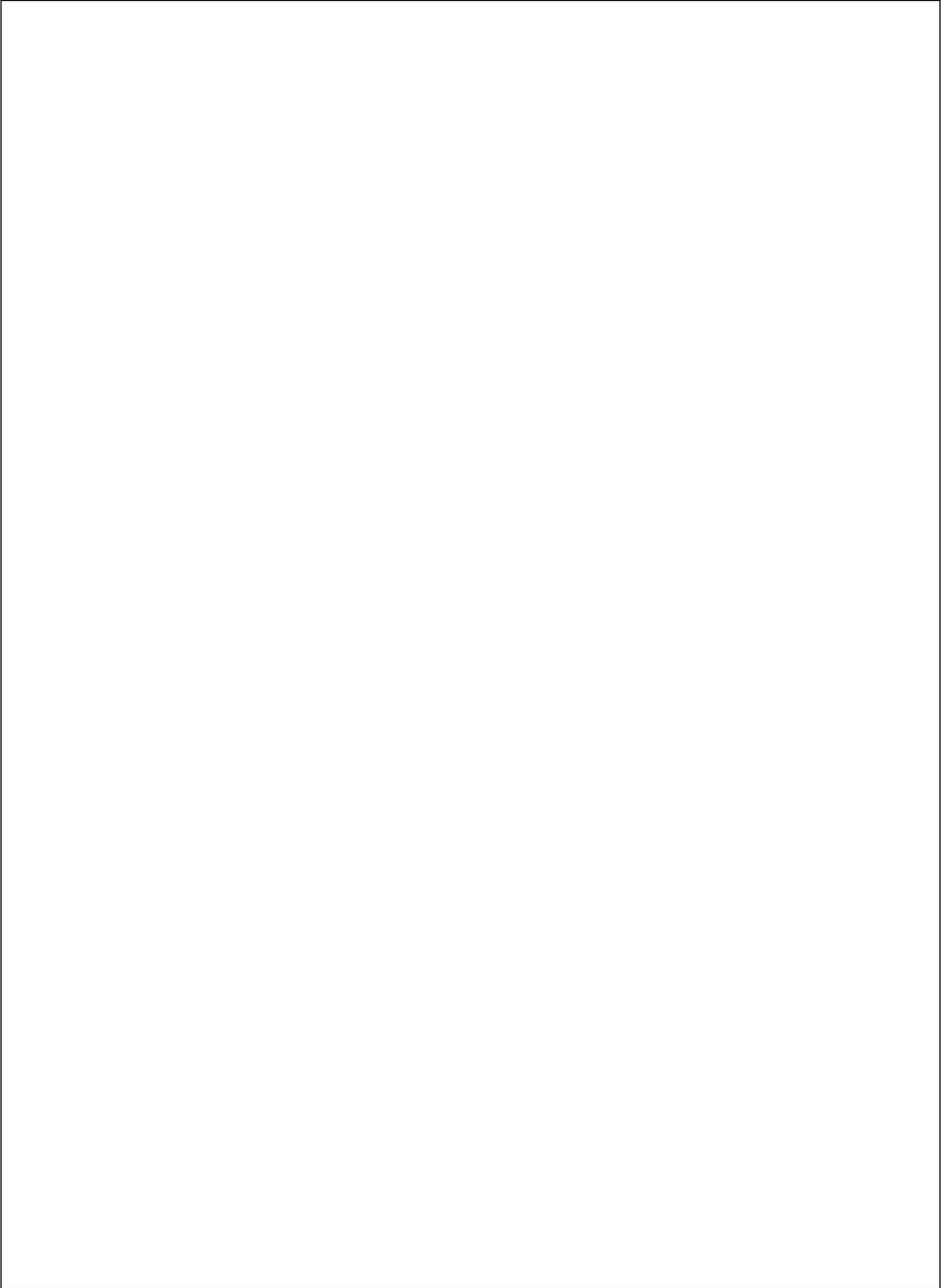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the upper half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a drawing or illustration.

문법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the lower half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writing a grammar explanation or notes.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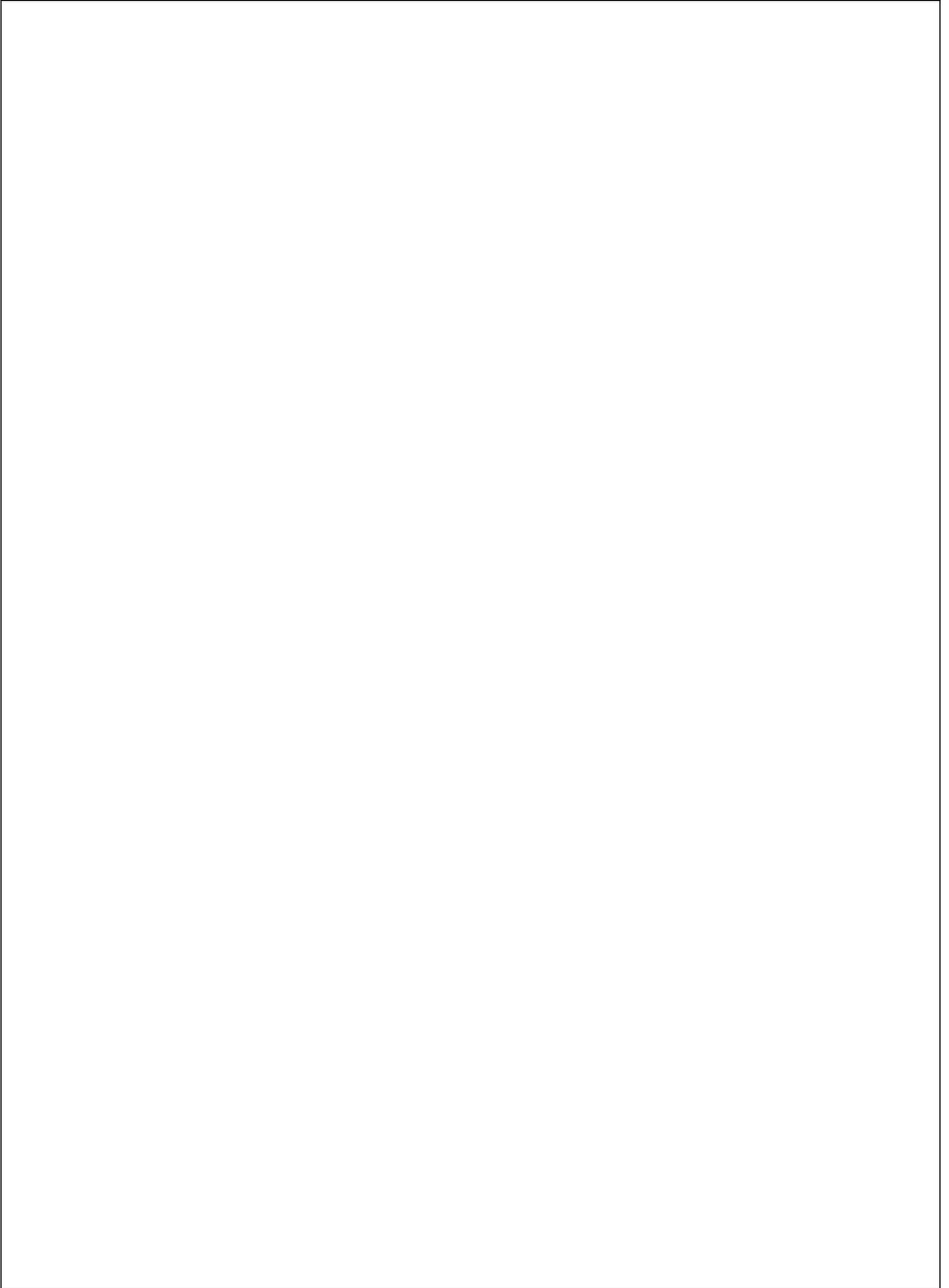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PLANS AFTER TEST

화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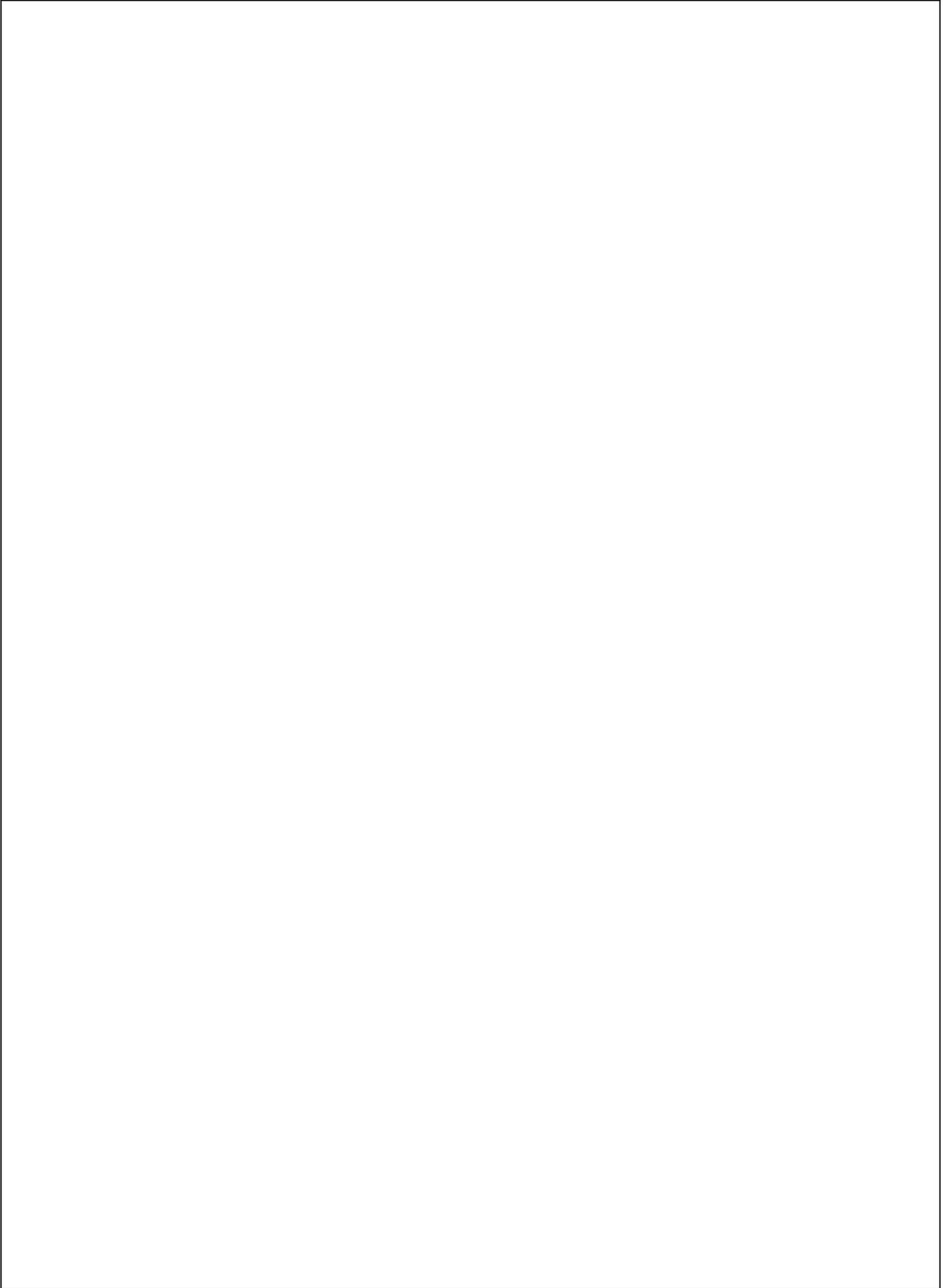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the upper half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a drawing or illustration.

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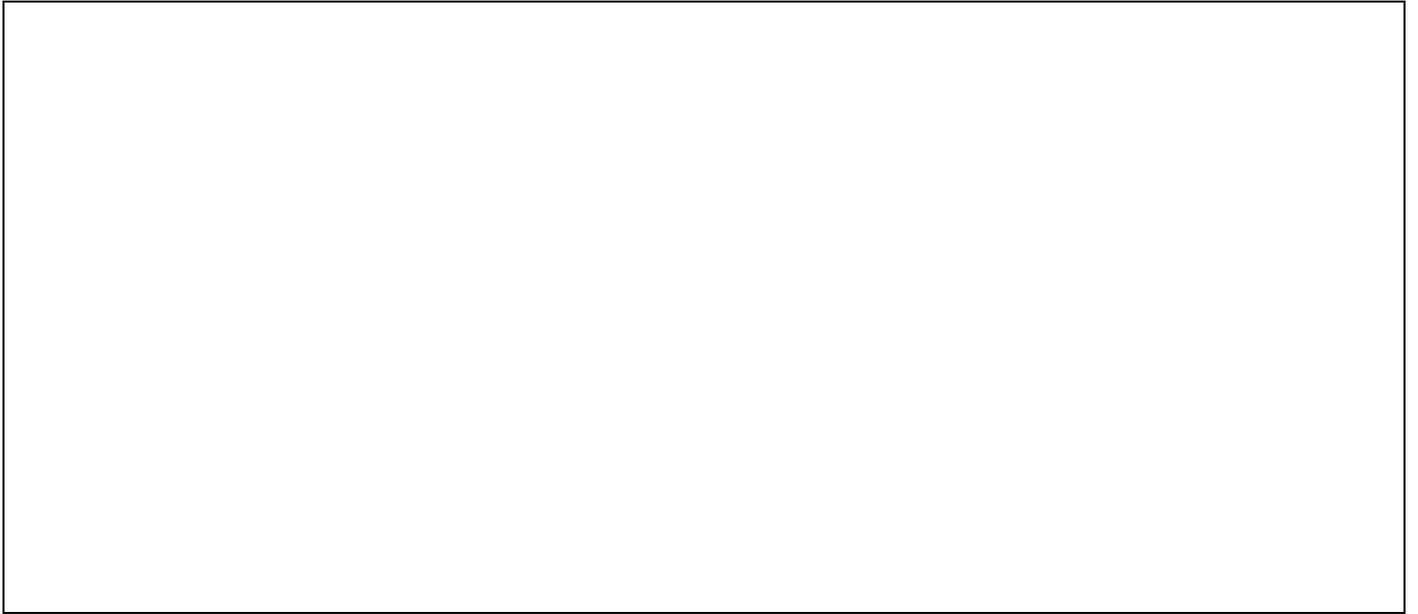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the lower half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writing a grammar explanation or notes.



독서



PLANS AFTER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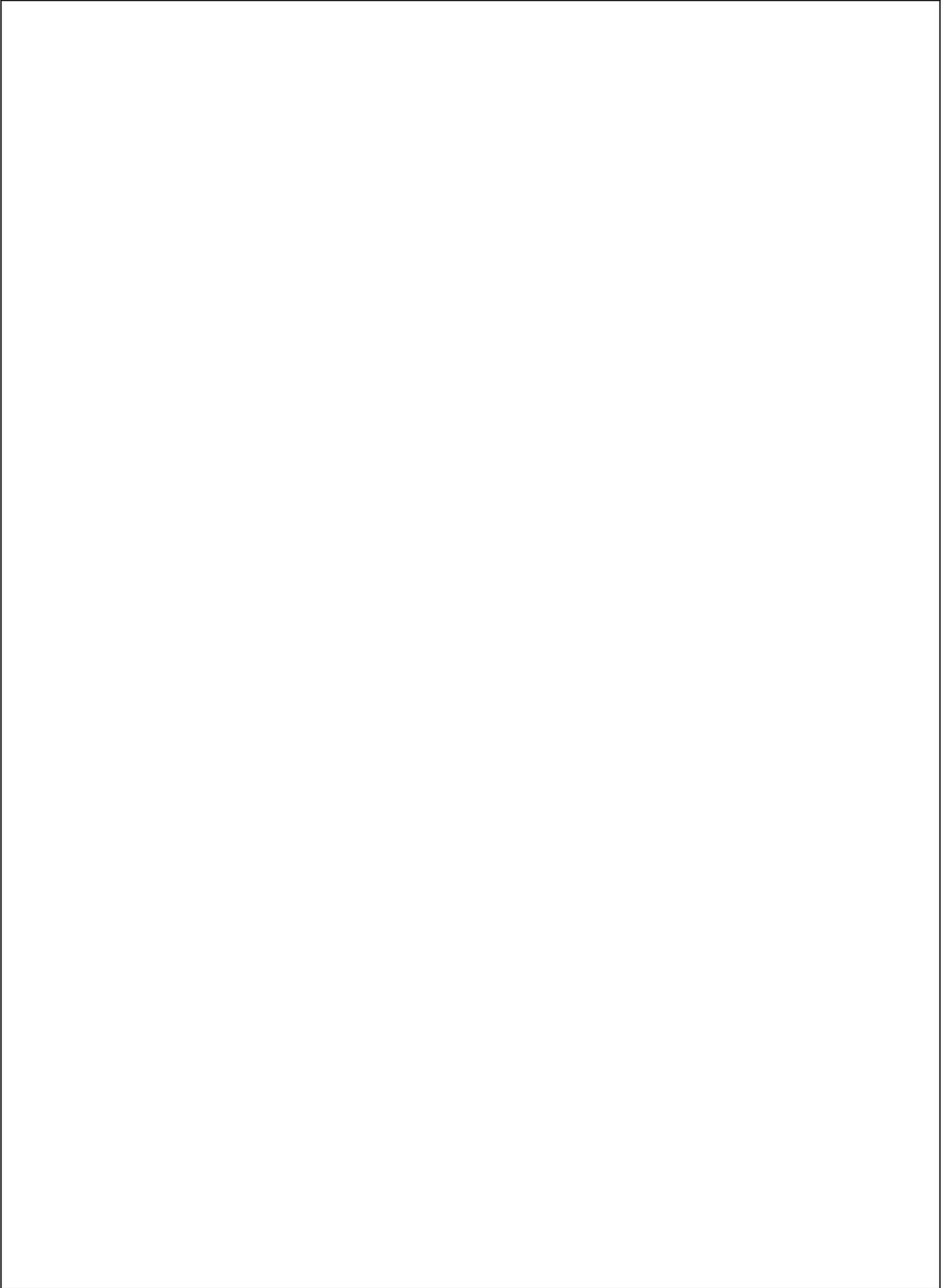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plans after a test. The box is currently blank.

화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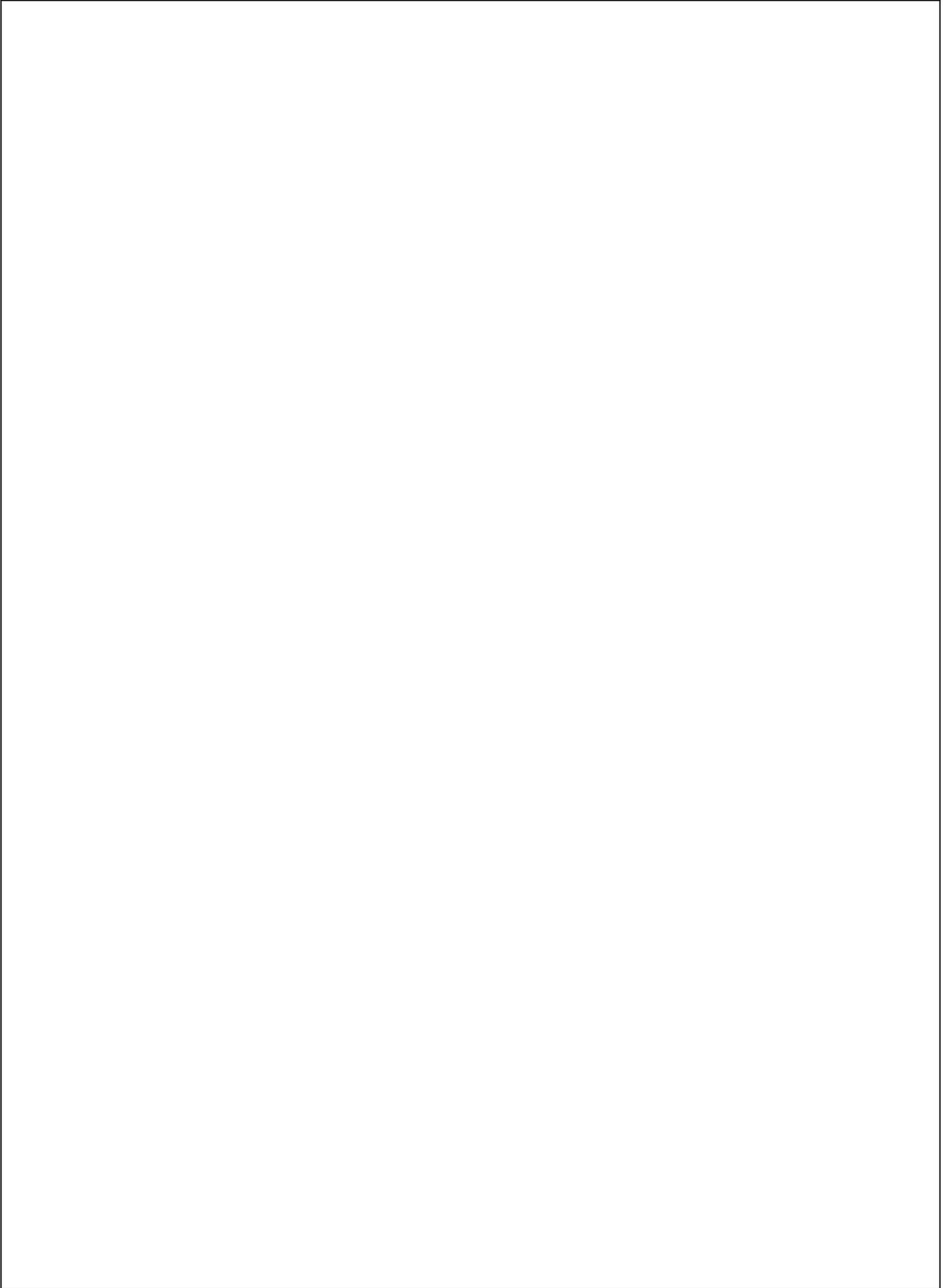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the upper half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a drawing or illustration.

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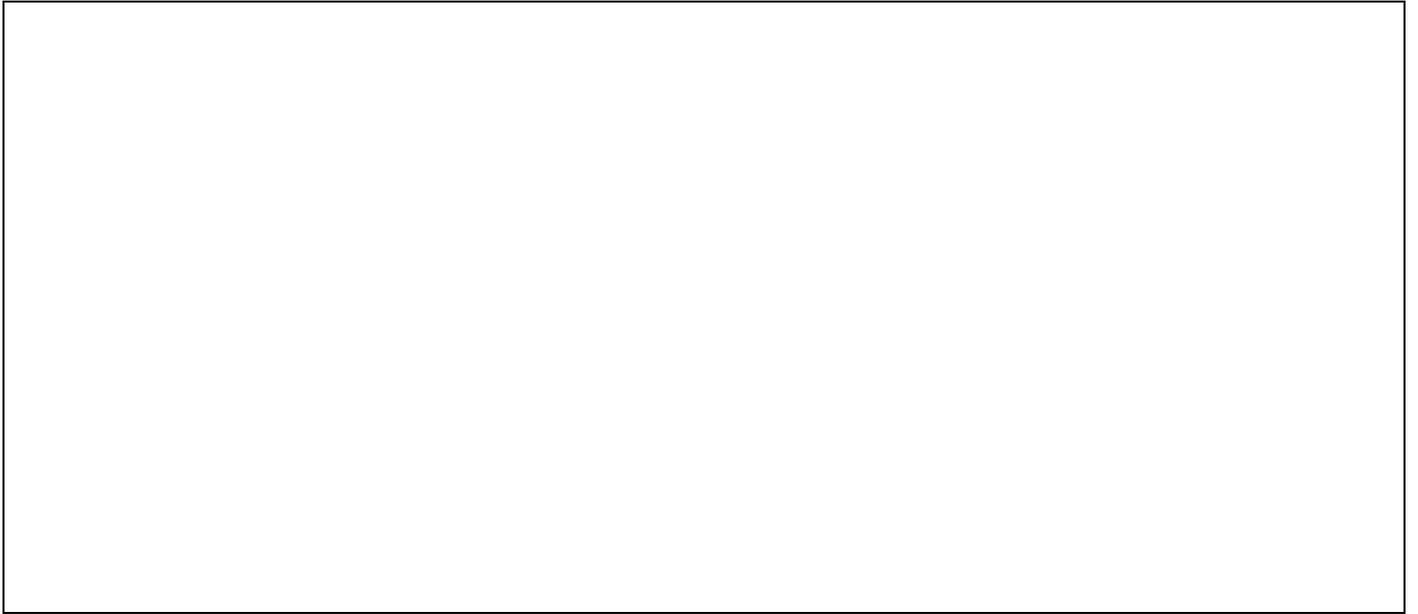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the lower half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writing a grammar explanation or answer.



독서



PLANS AFTER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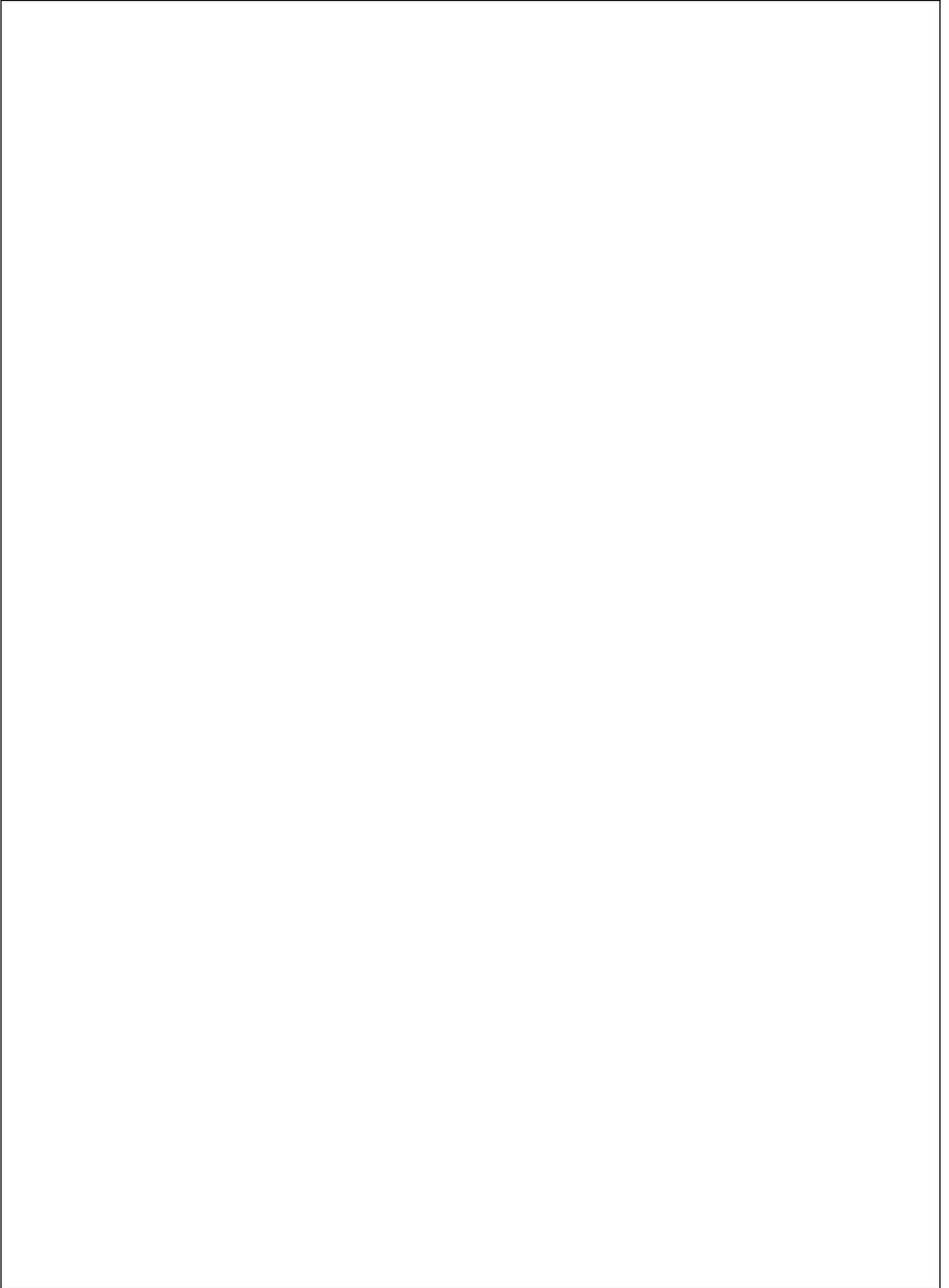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plans after a test. The box is currently blank.

화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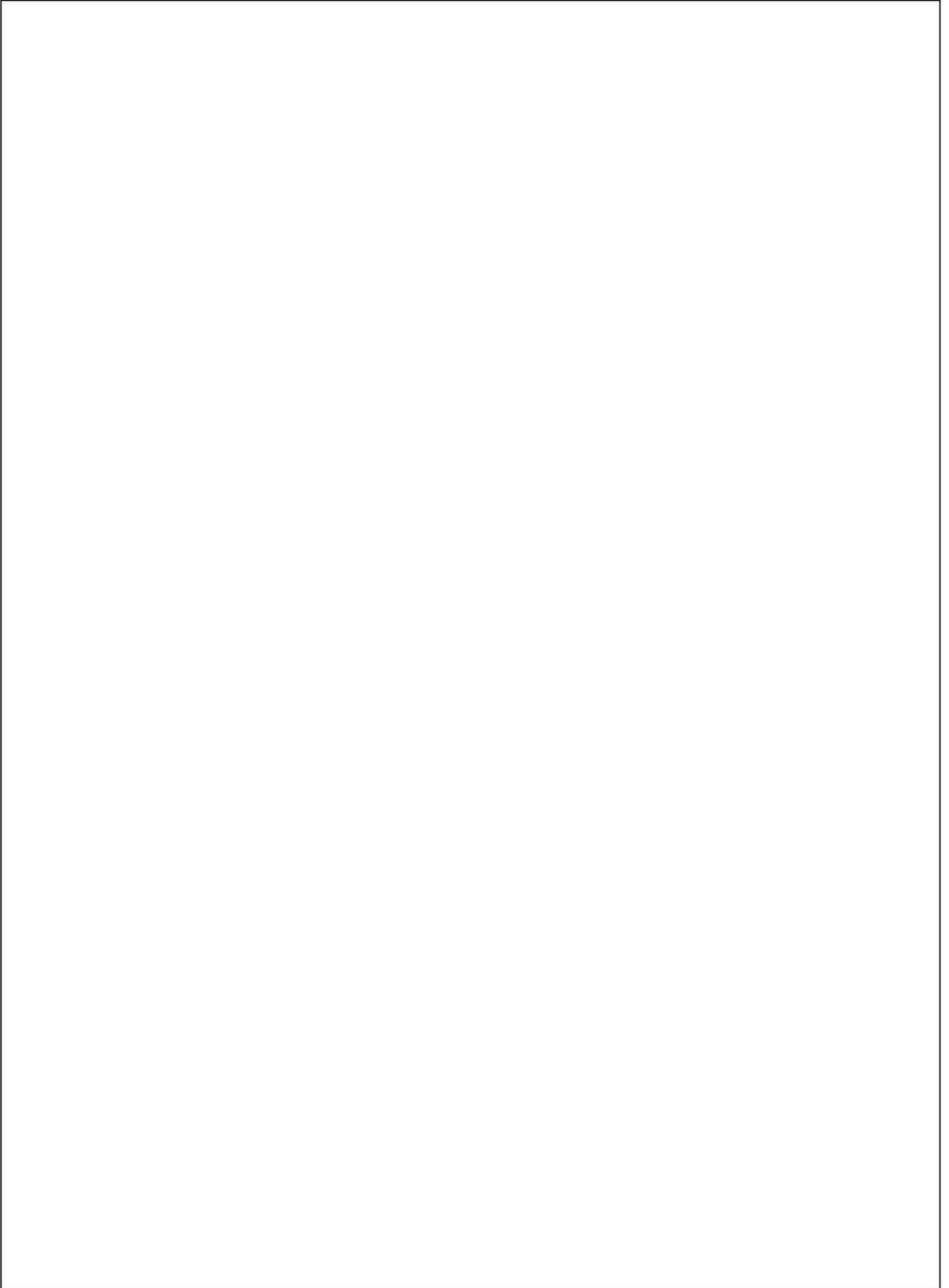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the upper half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a drawing or illustration.

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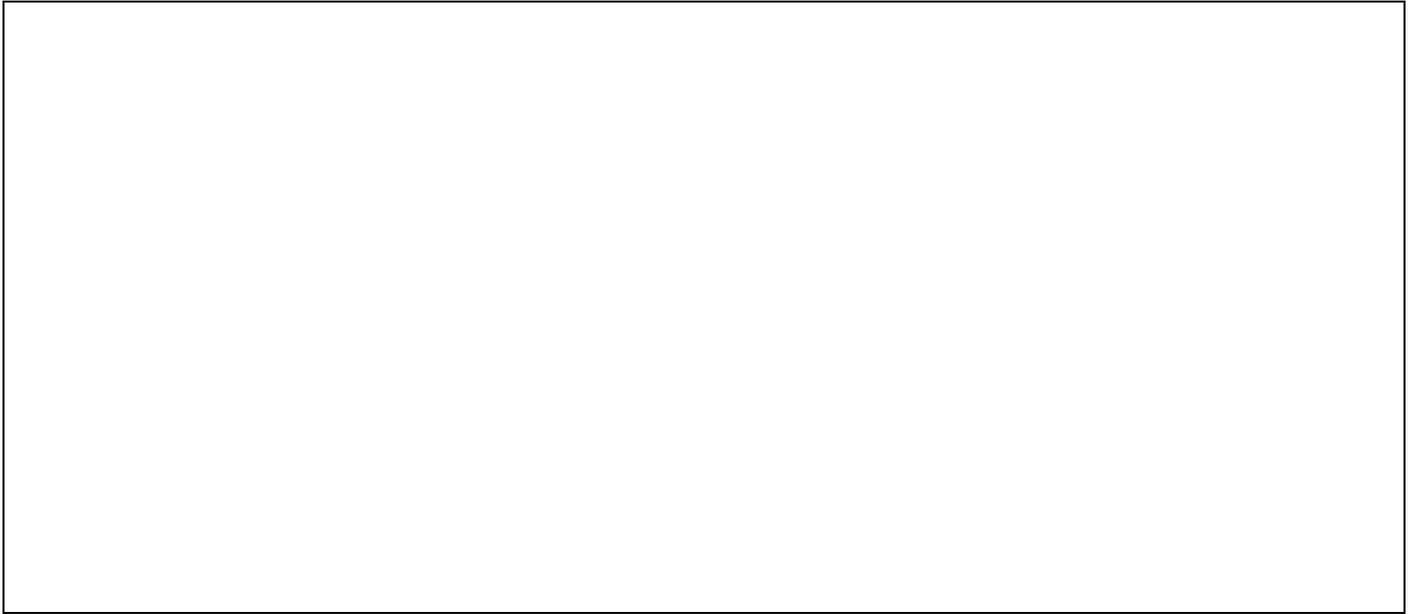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the lower half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writing a grammar explanation or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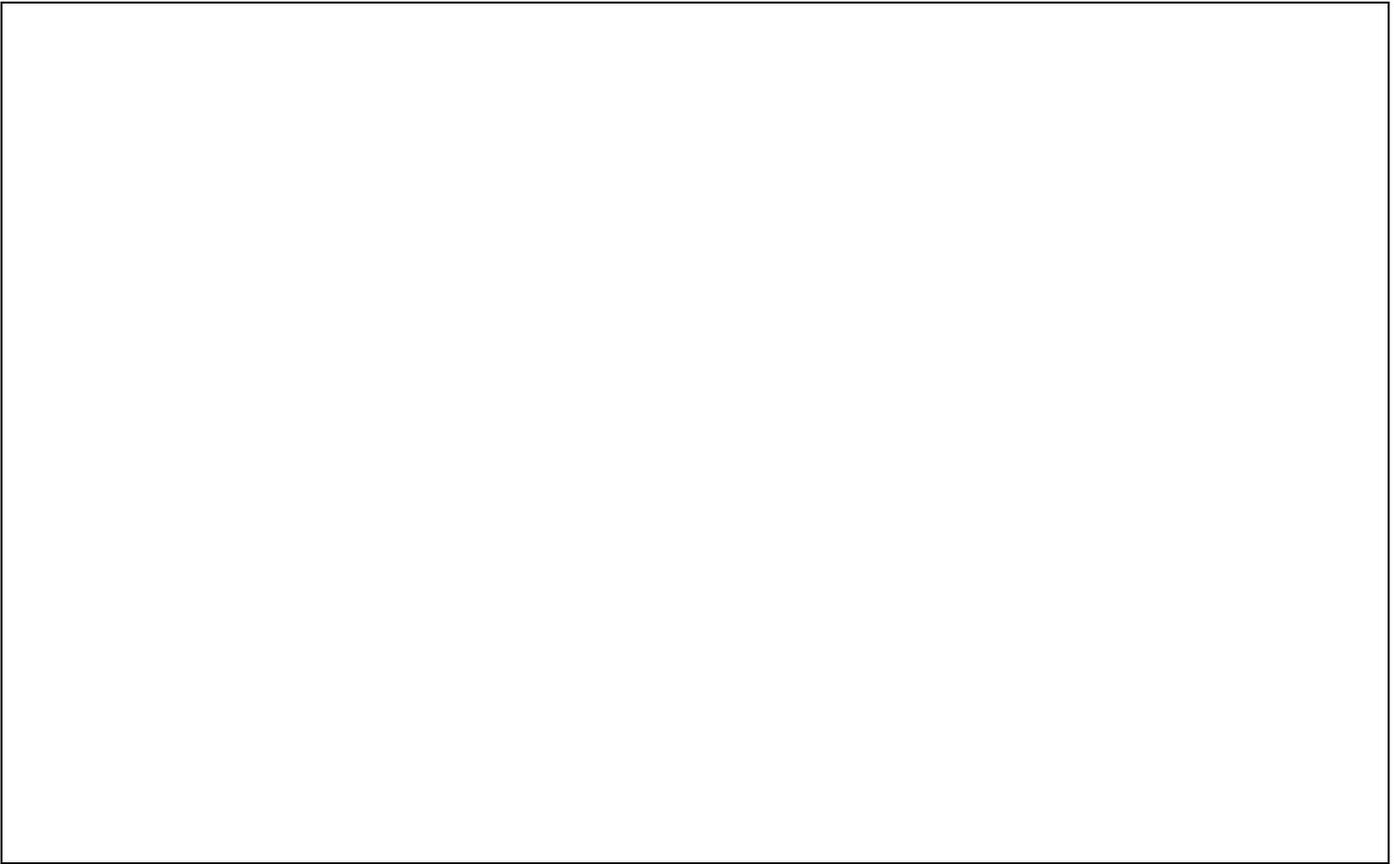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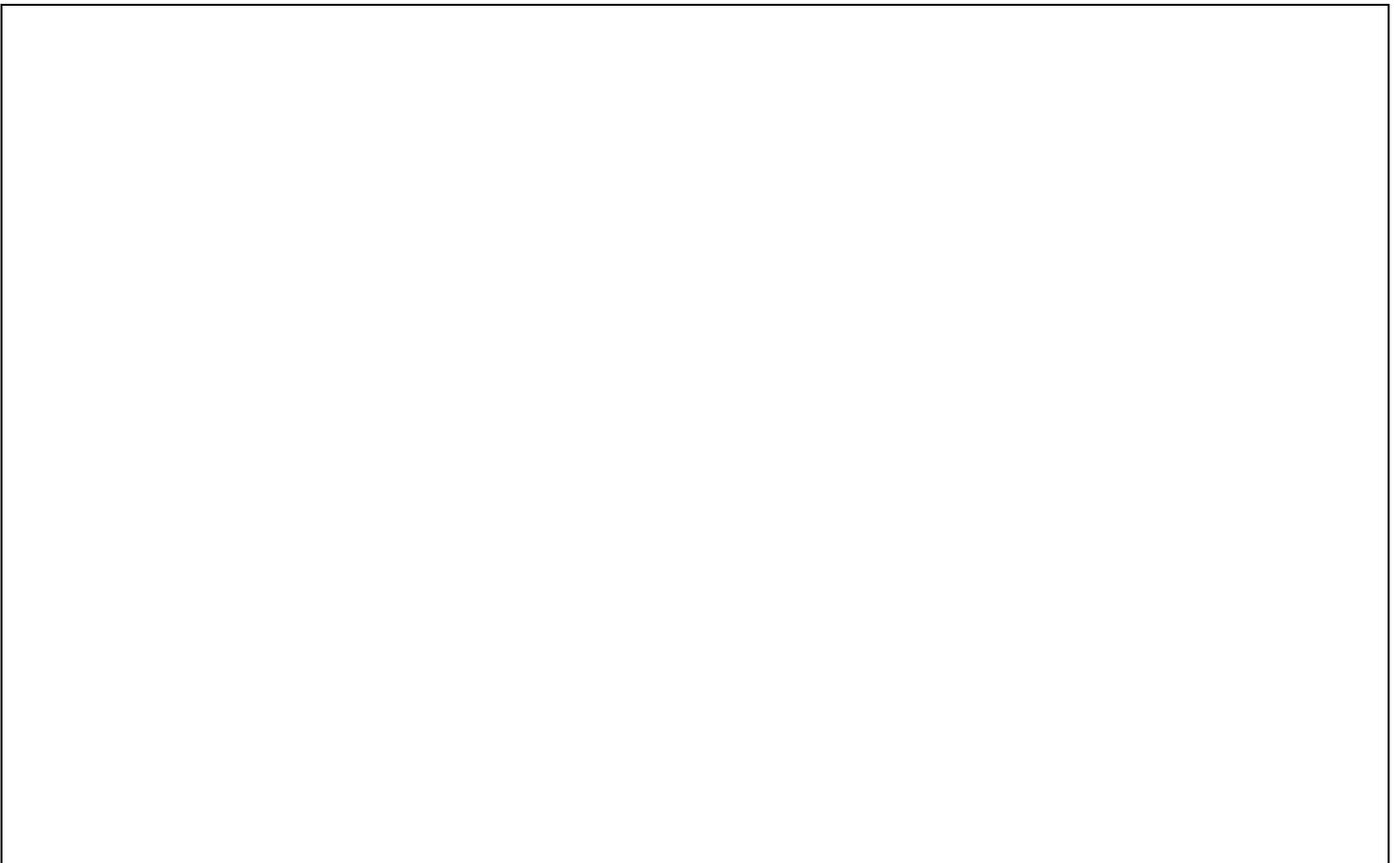
PLANS AFTER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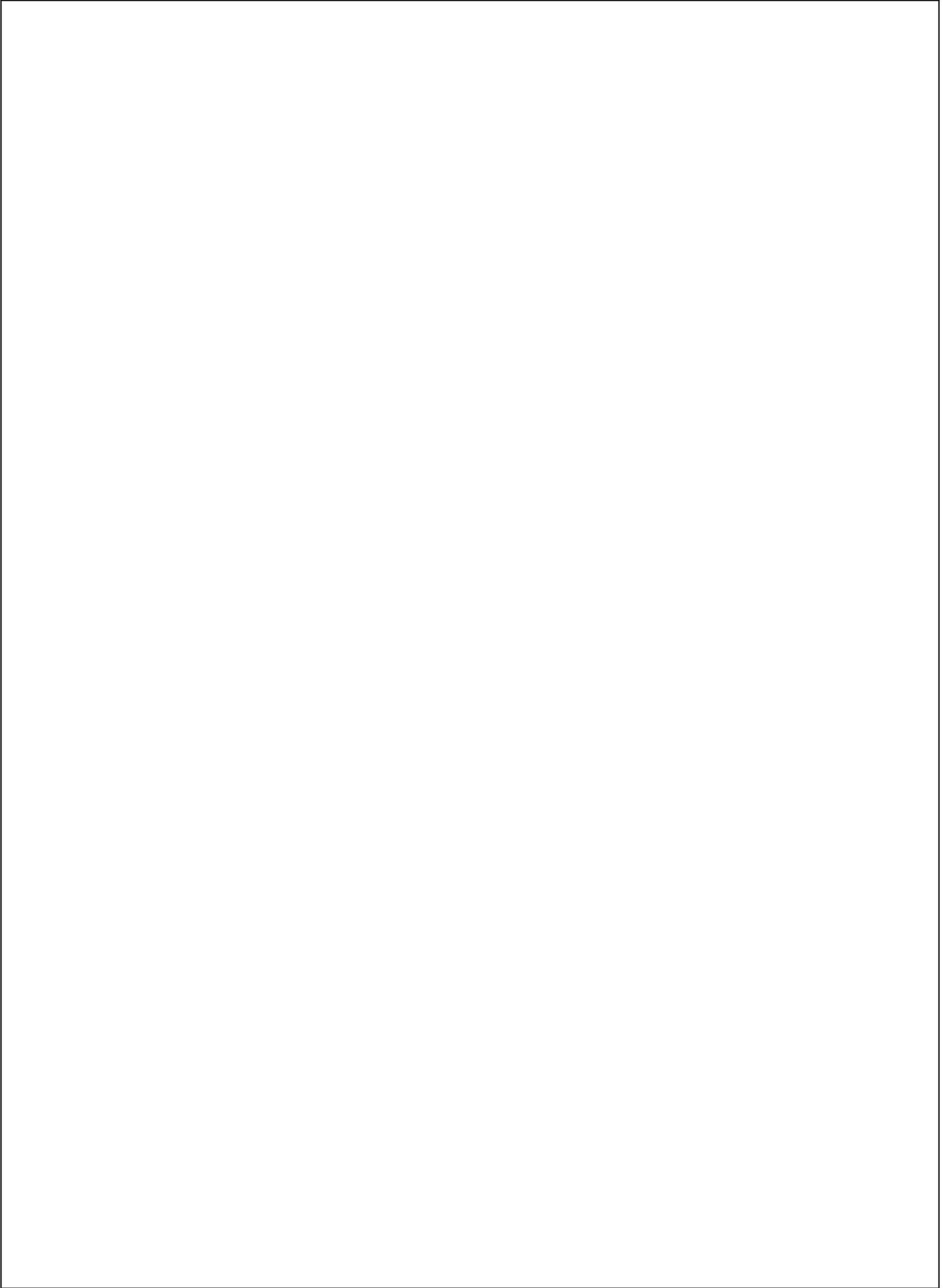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plans after a test. The box is currently blank.

화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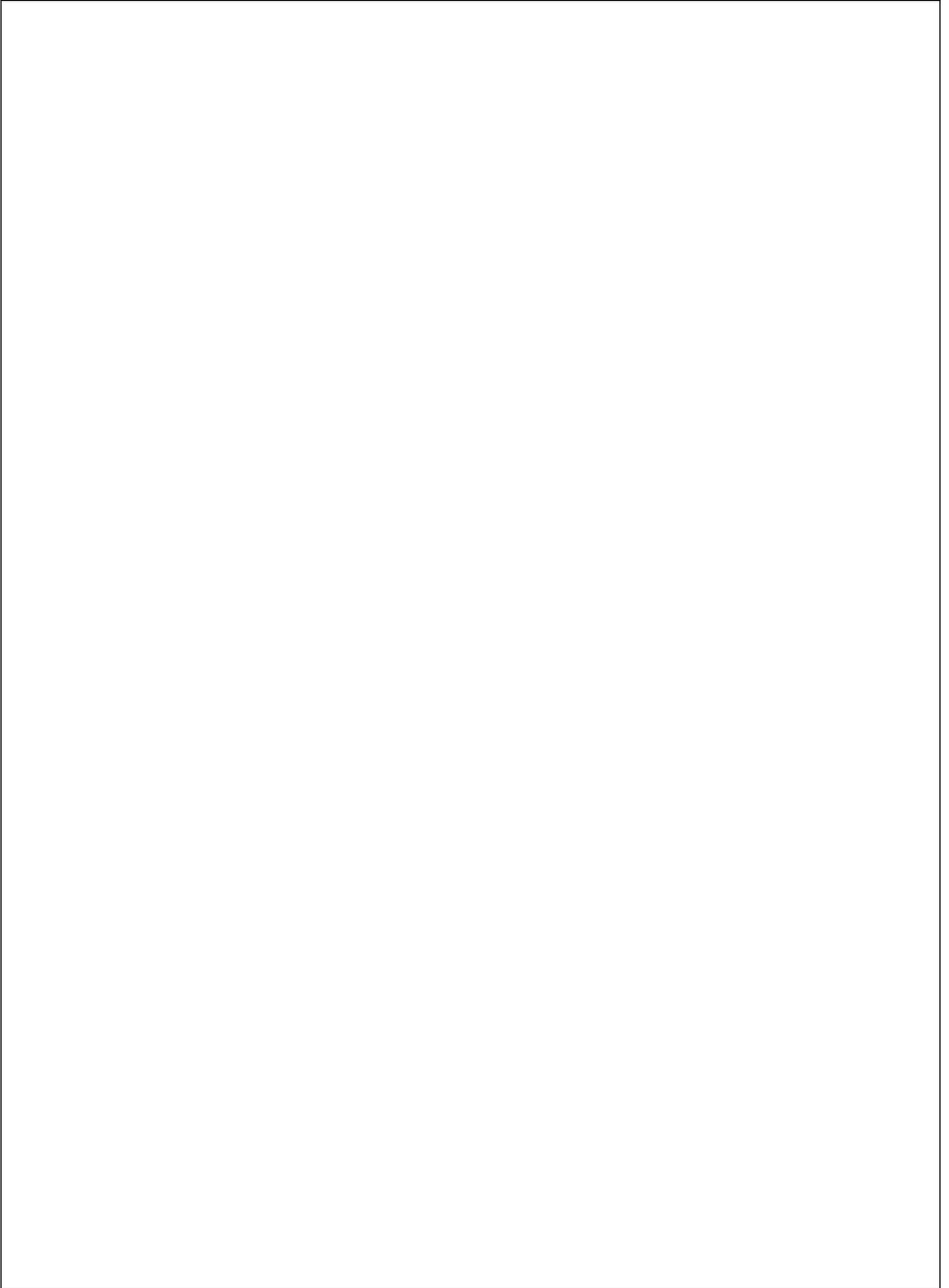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a drawing or illustration.

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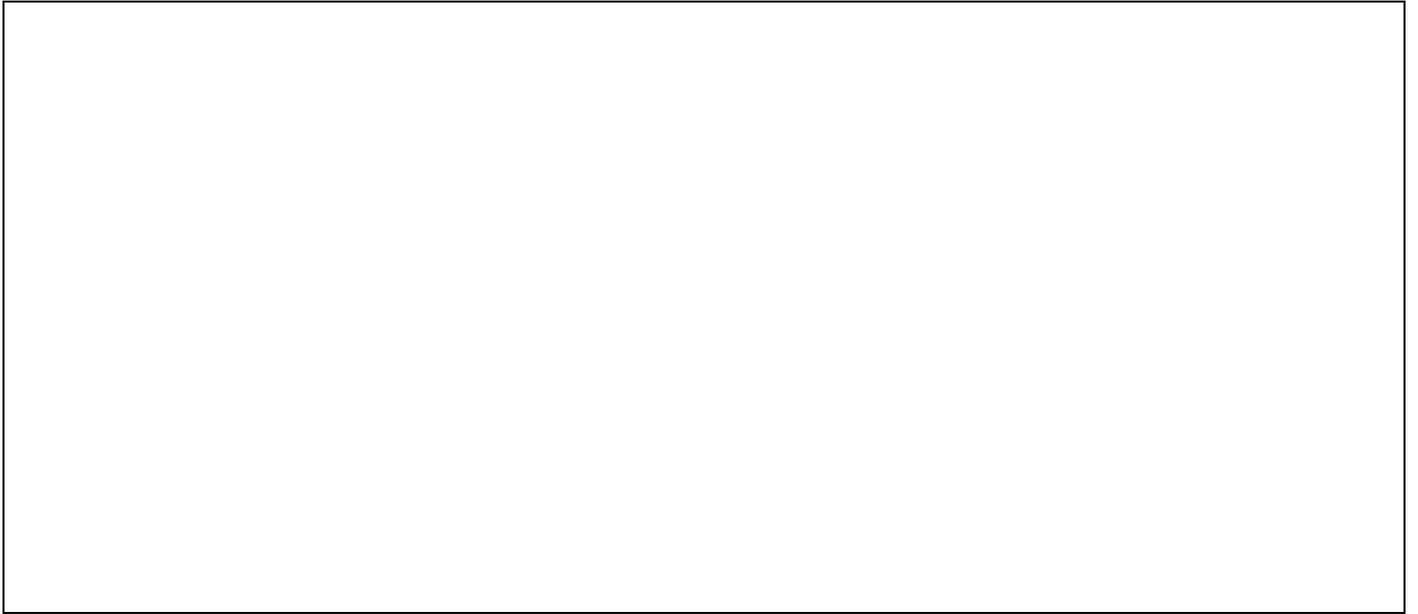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or text.



독서



PLANS AFTER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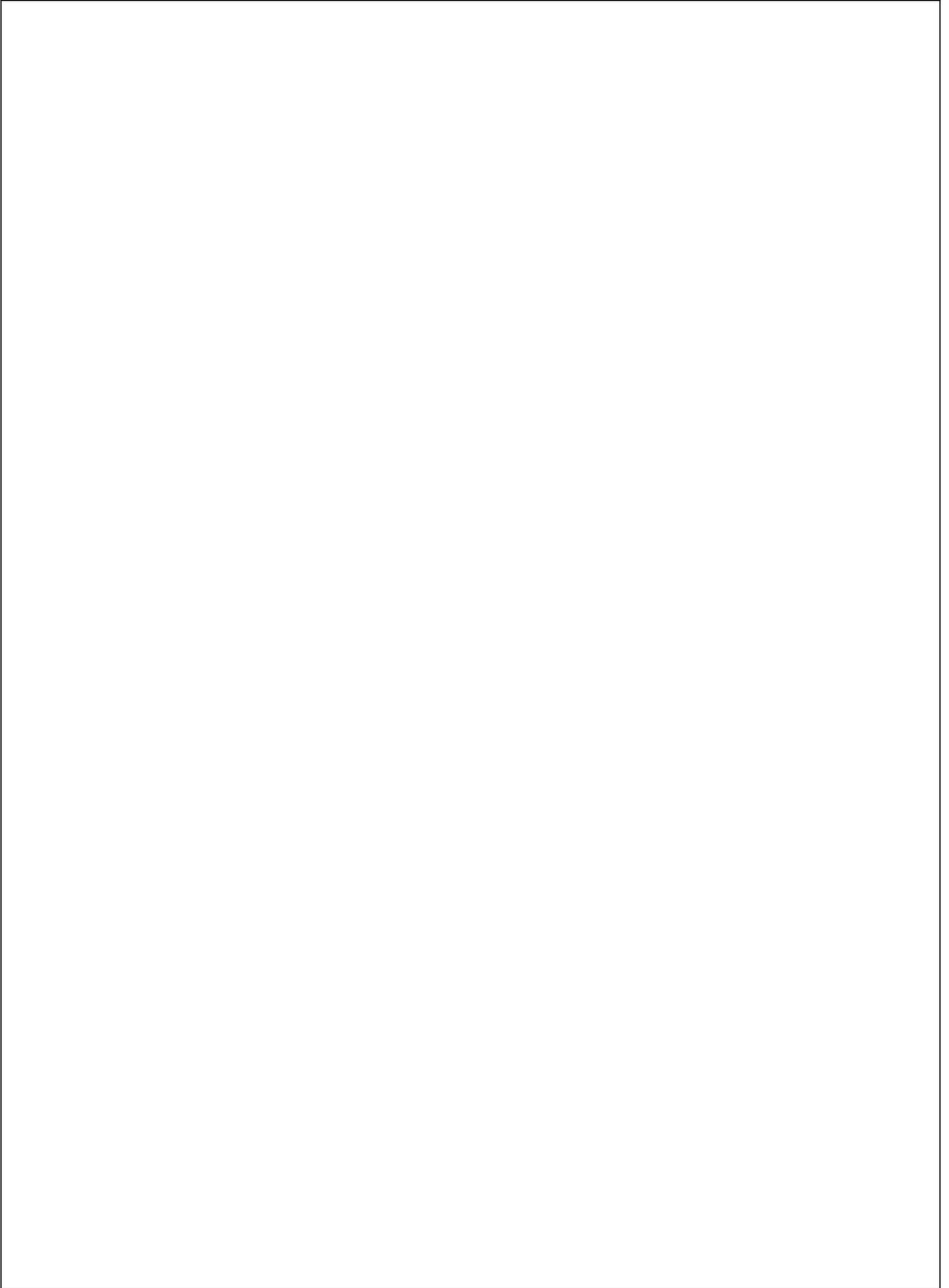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plans after a test. The box is currently blank.

화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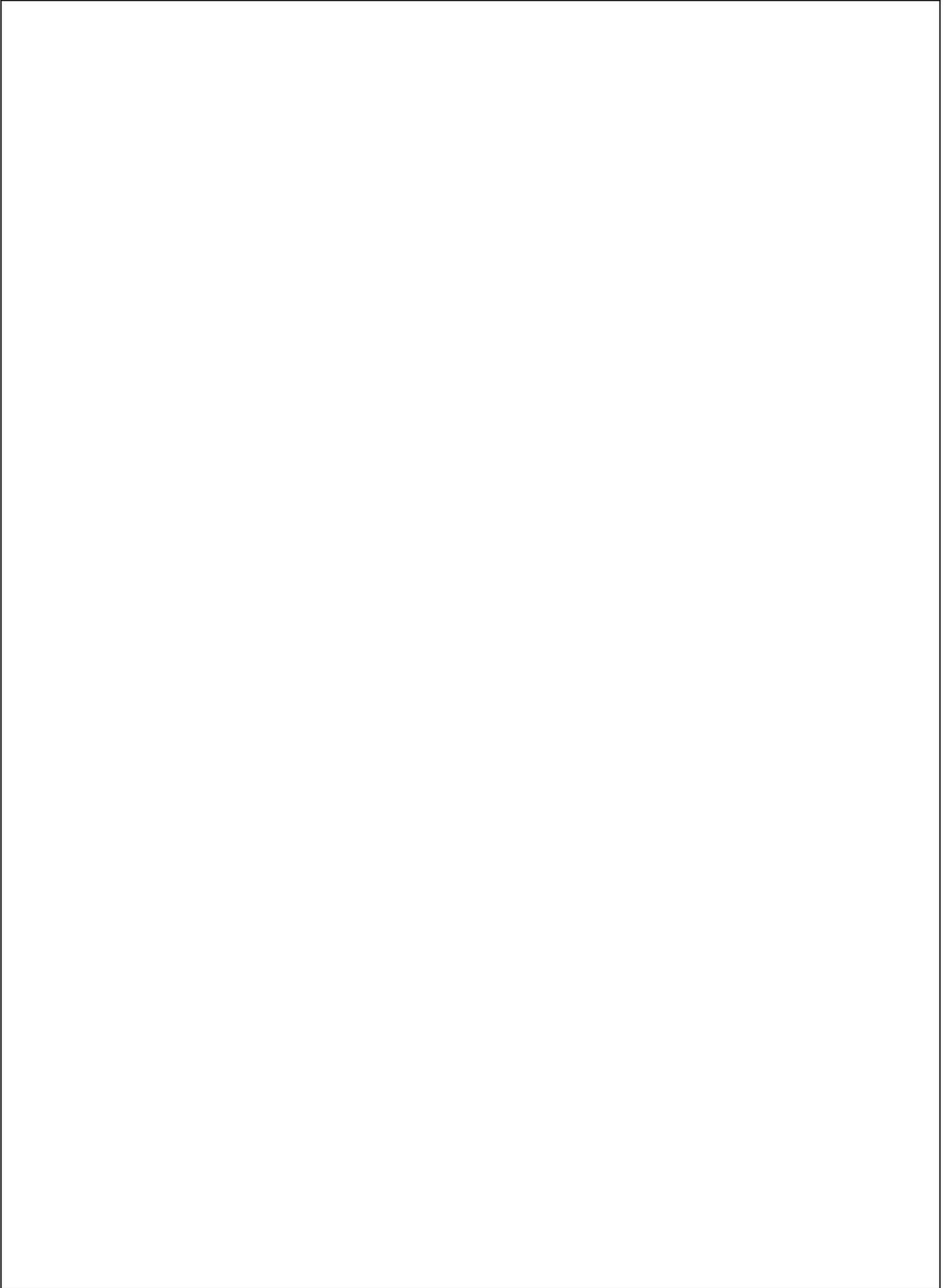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the upper half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a drawing or illustration.

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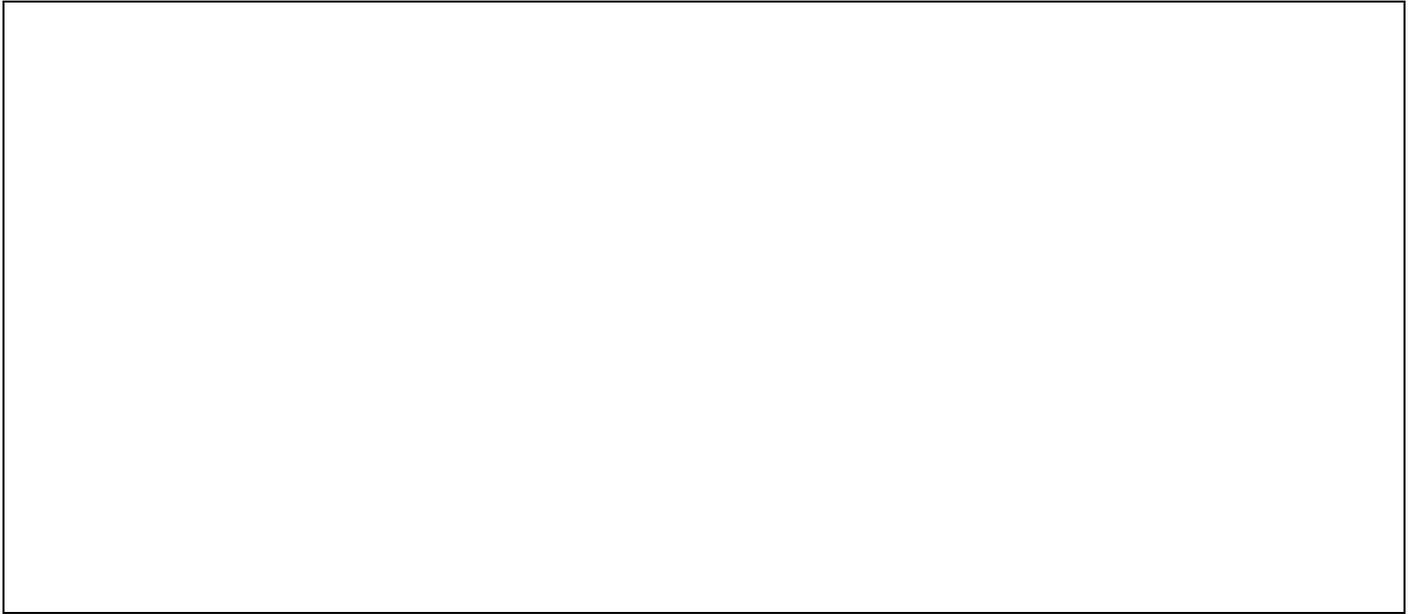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the lower half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writing a grammar explanation or answer.



독서



PLANS AFTER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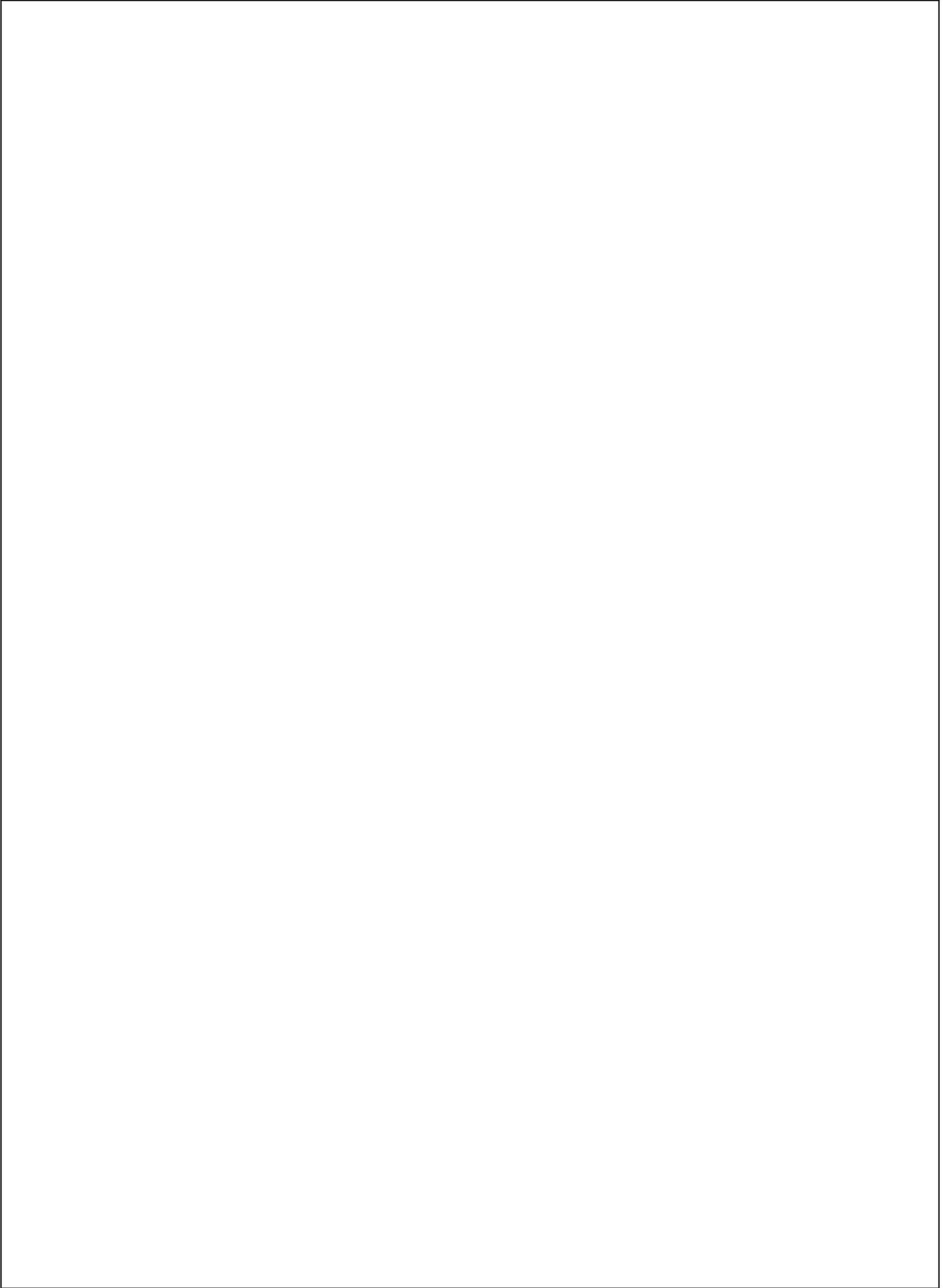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plans after a test. The box is currently blank.

화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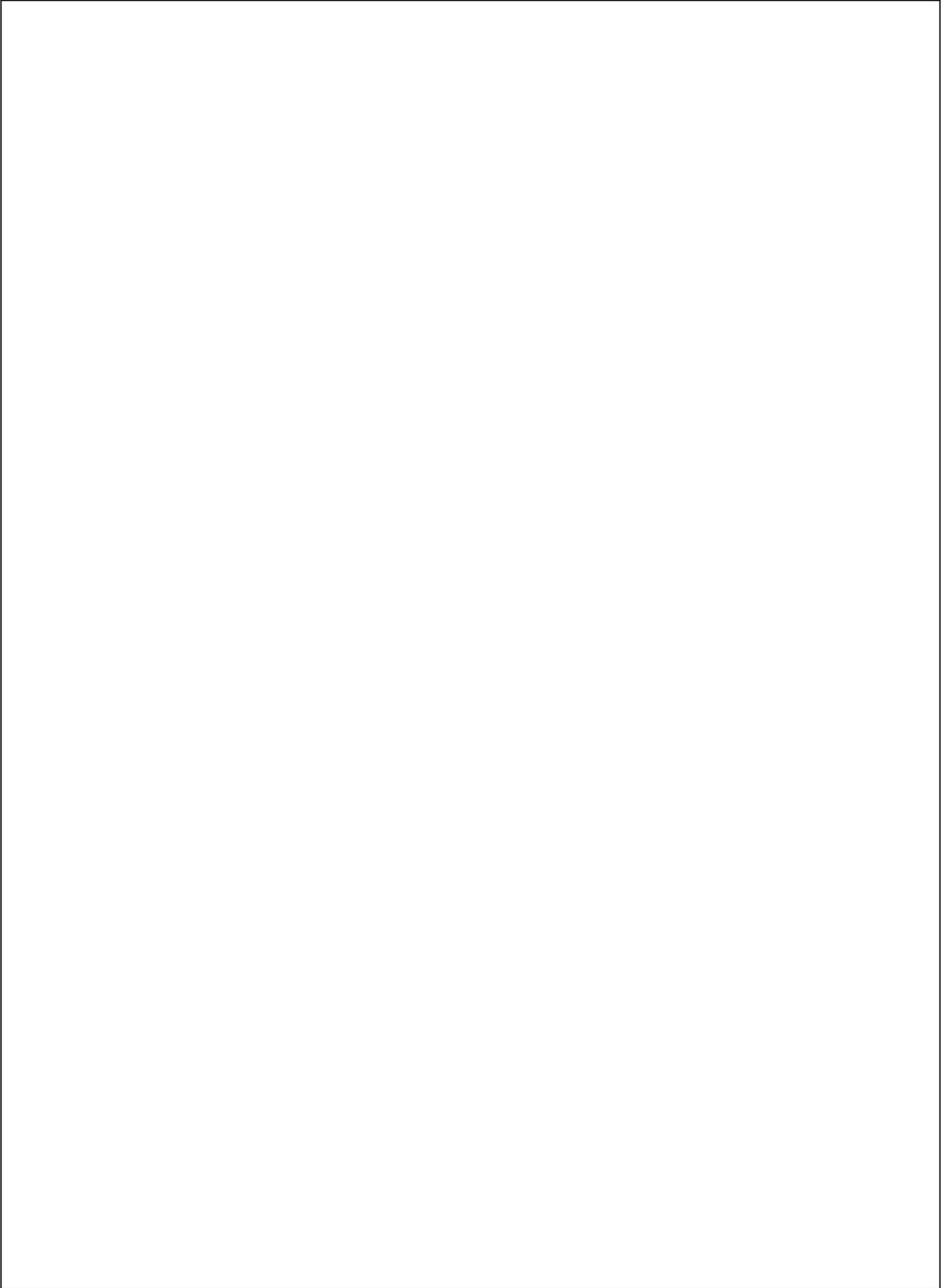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drawing or illustration.

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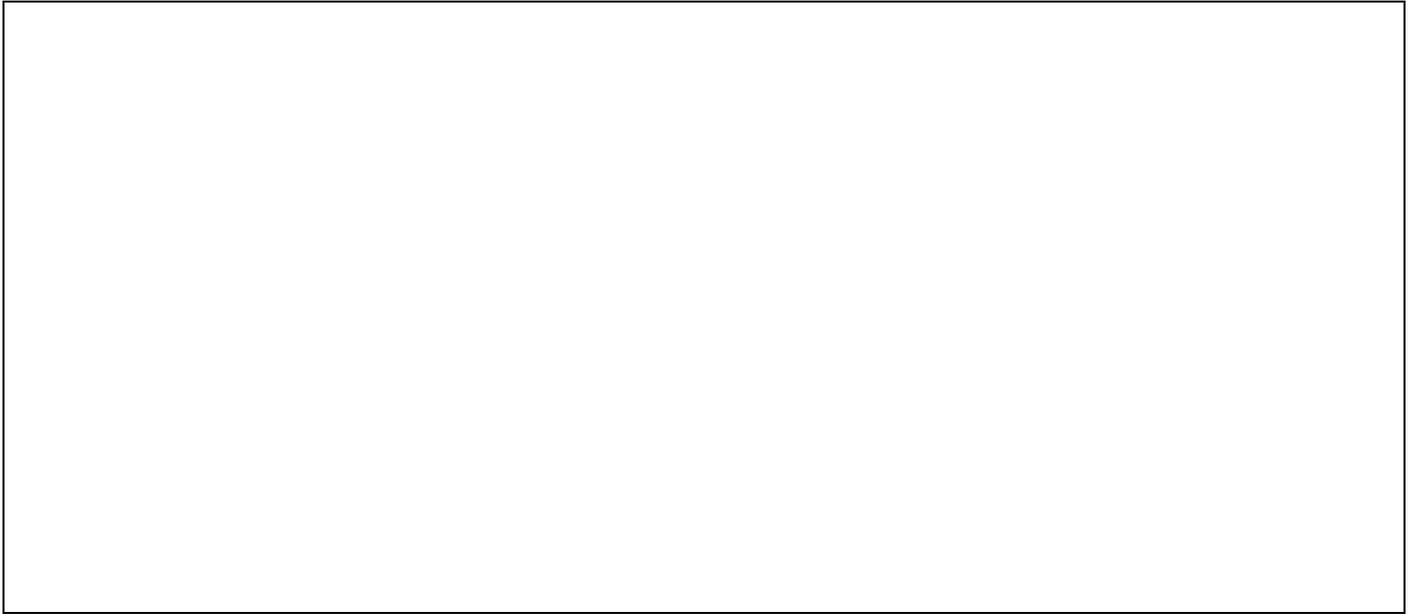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or text entry.



독서



PLANS AFTER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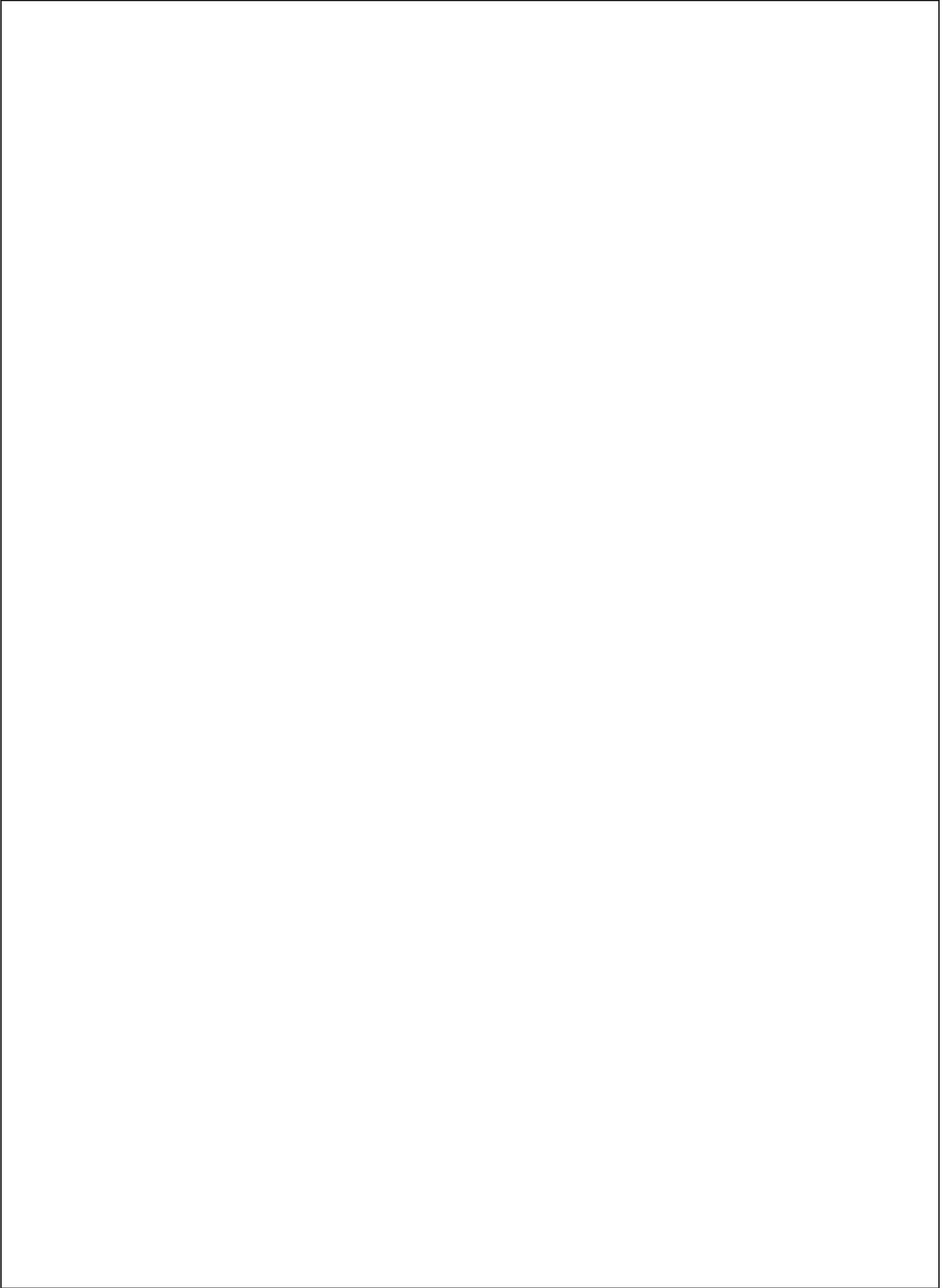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plans after a test. The box is currently blank.

화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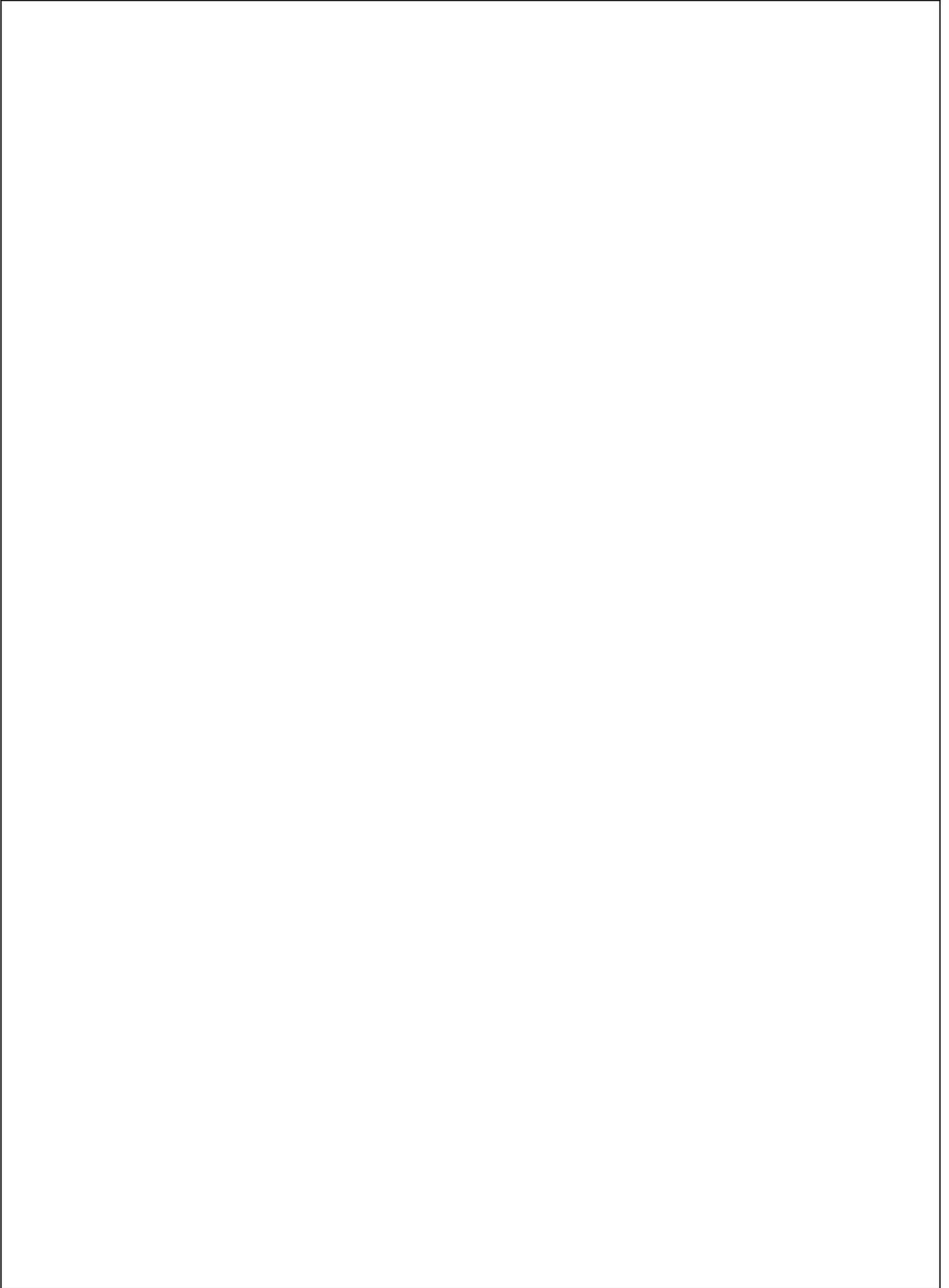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the upper half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a drawing or illustration.

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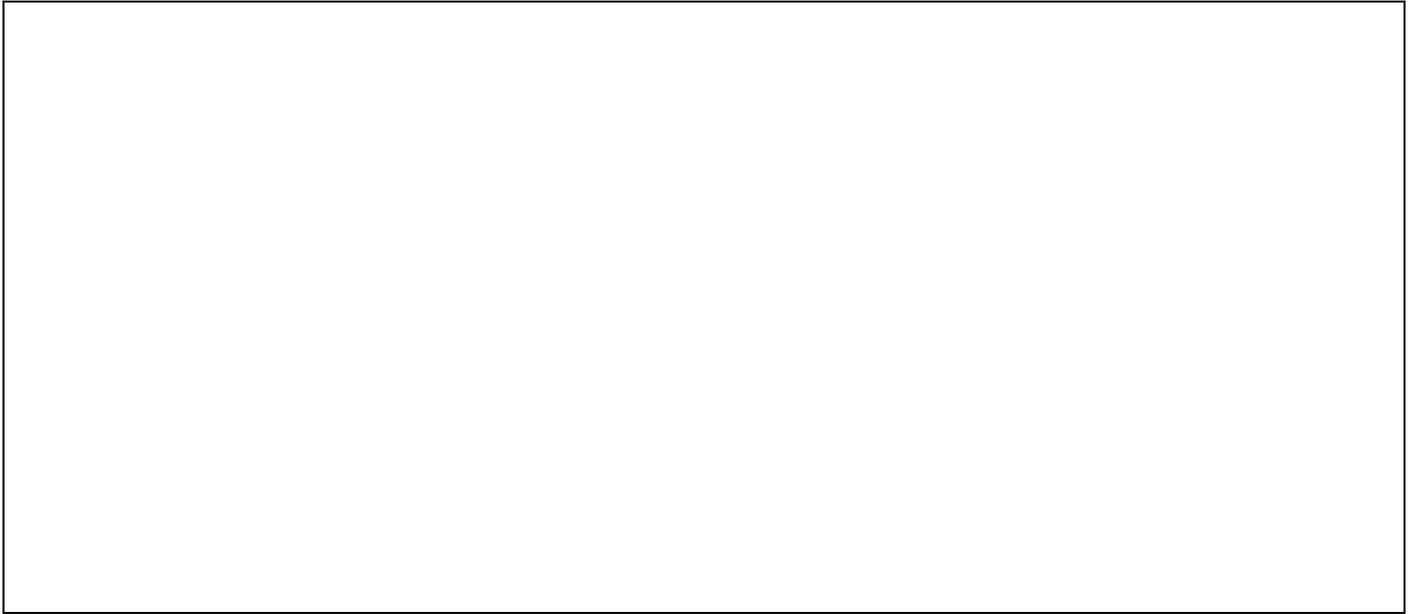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the lower half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writing a grammar explanation or answer.



독서



PLANS AFTER TEST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plans after a test. The box is currently blank.

실모 피드백 학습지 이용 예시

삭제 폴더 이동 ▾ 생성일 (최신순) ▾

한수 모의고사 파이널 2회 [19.06.15] 72점 (88/81/76) [독서 3에서 찍어서 한 문제 맞음] # PLANS BEFORE TEST - 아는 문제, 맞아야 하는 문제는 무조건 맞추기 - 적절한 시간 분배 - 문학 ; 빠르고 정확한 선지 판단	한수 모의고사 6월 평가원 대비 3회 [19.09.10] 79점 (85 / 77) [찍맞 X] # PLANS BEFORE TEST - 9월 모의고사와 한수 파이널 3회 처럼 이상한 실수들만 하지 말자. 갑자기 실수가 늘었다. 정확도가 매우 낮아졌다. - 독서를 풀기 위해 몰아치기 # PERFORMANCES
<input type="checkbox"/> 2019.09.10 17:33 ✎ ★	<input type="checkbox"/> 2019.09.03 22:10 ✎ ★
한수 모의고사 파이널 3회 [19.09.10] 74점 (85 / 77) [찍맞 X] # PLANS BEFORE TEST	20.09 국어 피드백피드백피드백 2. 문학 (0) 25+ 이젠 문학을 첫 번째로 보는 거에 익숙해졌기에 이번 9월에도 당연히 문학을 먼저 보았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이기에 당연히 떨렸다. 그래서 문학 첫 번째 세트인 [16~20]; "상춘곡" "고산구곡가" 는 완벽한 EBS 연계이고 전문을 다 봤기에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해매었다. 17 19 20은 답이 보였지만 확신이 안 갔다. 평소처럼 허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확신은 안 갔지만 다 맞았다.

작년에 실모를 풀며 위와 같이 피드백할 내용들을 타이핑하곤 했습니다.

이를 제가 만든 양식에 맞춰서 옮겨 보았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꼼꼼히 할 필요는 없어요!

잘 해서 굳이 피드백 안해도 되는 건 안해도 됩니다.

제 흔적들을 보시며 어떻게 해야겠다는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한수 모의고사

6월 평가원 대비 3회

[19.09.10]

79점

[85 / 77 / 70]

PLANS BEFORE TEST : 이전의 [PLANS AFTER TEST](#)를 반영할 것

- 9월 모의고사와 한수 파이널 3회 처럼 이상한 실수들만 하지 말자.
갑자기 실수가 늘었다. 정확도가 매우 낮아졌다.
- 독서를 풀기 위해 몰아치기
- 아는 문제, 맞아야 하는 문제는 무조건 맞추기
- 적절한 시간 분배
- 문학 ; 빠르고 정확한 선지 판단 → 거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PERFORMANCES

문학	화작	문법	1차 마킹	>	독서1	독서2	가채점표	>	독서3
26	13	8	2		10	15	X		6

모두 연계 지문이었다. 현대시를 제외하고 모두 연계체감이 되었다. 현대시는 제목만 기억이 났다. 지문을 읽으며 표현법과 시의 상황 등을 연계 공부 이력과 <보기>를 통해 빠르게 캐치하곤 했는데 이번엔 그러지 못 했다. 그 결과 완전히 꿰뚫고 있는 내용임에도 틀린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거리"는 틀리면 안 되는 작품임에도 4 문제 중 두 문제나 틀렸다. 푼 순서대로 분석해보자.

[16~20] ; [안서우, "유원십이곡"] [이태준, "고완"] (1)

#18 (2)

내용일치 문제다. 지문을 그저 차분히 봤다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 연계효과를 누린다고 해도 완벽하게 알고 갈 수는 없다. 읽어야 할 것은 읽자.

[25~28] ; [오정희, "중국인 거리"] (2)

#26 (2)

헛갈릴 만한 문제. 매력적 오답은 내가 쓴 답인 1번으로 예상된다. '전진'의 의미가 '싸움터에서 이는 먼지나 티끌'이기에 1번을 맞는 선지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야한다. 전진은 굴뚝의 연기가 전쟁으로 인한 연기와 비슷하다는 걸 표현하지, 전쟁으로 황폐화된 도시를 표현하지는 않는다. 무엇을 어떻게 비유하는가를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한다. 2, 3, 4 번 선지는 명백히 틀렸다. 5번 선지가 답이다. 근거가 명확하고 단순하다. "나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종이 뭉치를 끌었다." 굳이 *문을 잠근 뒤* 라고 쓴 이유가 무엇인가? 뭔가 들키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허용가능하다. '들키다'가 아닌 '보여지다' 등으로 봐도 맞지 않는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약간의 차이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이는 선지에서 결정해준다. 우리가 생각한 서술어와 선지가 선언한 서술어간의 공통감이 크다면 그 미묘한 차이는 선지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 1번 선지가 1번이고 답 선지가 5번이기에 오답을 고른 학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8 (3)

난 틀리면 안되는 문제. 시험 때 지문을 다 읽었고 '중국인 거리'가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캐치했었는데 1번을 틀리다고 하지 않고 넘어갔다. 얼마나 집중력이 낮았는지를 보여준다.

[43~45] ; [작자 미상, "황월선전"]

#45 (1)

고전소설은 서술되는 방식이 주어와 목적어 등을 명확히 하지 않고 같은 어휘라도 그 쓰임이 지금과 조금씩 달라 문장 분석을 통해 내용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 그렇기에 거시적으로 상황을 구성해서 파악해야 문제풀이에 유리하다. 이러한 점이 부족하여 틀렸다.

화작

(0) 13min

본인이 다 맞고 잘 풀었다면 굳이 안써도 되겠죠?

문법

(0) 8min

본인이 다 맞고 잘 풀었다면 굳이 안써도 되겠죠?

[21~24] ; 독서 1 "도덕적 판단" (1) 10

첫 번째 독서 지문은 '도덕적 판단'에 관한 지문으로 상대적으로 쉬운 지문이다. 하지만 반응의 측면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항대립이 대놓고 나와있었는데 이를 눈치채지 못 했다. 정보량이 그리 많은 편도 아니다. 물론 다른 철학지문보다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불친절하긴 했다. 사실 매우 불친절하다. 절대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대립되는 상위 개념들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 정보간의 유기성을 스스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제가 생략되어 있고 그 전제를 묻는 선지가 해당 문제의 정답선지로 나왔다. 그 문제를 틀렸는데, 지문에 있는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문에서 언급해야 하는데 없는 내용이라면, 맥락에 따라 스스로 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32~37] ; 독서 2 "통화 정책" (3)

작정하고 낸 문제다. 어휘 문제 없이 6문제가 나왔다. 지문의 정보량도 길이도 19.11.우주론 지문보다 많다. 우주론 지문은 인문+과학 지문이기에 스키마 형성이 잘 되었지만, 이 지문은 이항대립적인 스키마를 형성하는 것이 크게 유리하진 않은 지문이다. 하지만 돌파구는 있다. 이런 지문은 사실 거의 고전이다.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내용과 구조라는 것이다.

독서 3 (1) 6

문제 빠르게 스캔하고 확실히 풀 수 있는 것만 풀었다.

PLANS AFTER TEST : 다음 [PLANS BEFORE TEST](#)에 반영할 것 / 다음 실모 응시 전까지의 학습 계획 수립

- 가장 중요한 건 시험 당시의 맑은 정신! 전날에 최소 6시간 이상은 자야 한다. 되도록이면 7시간.
- 현대소설 기출 <보기> 문제 출제 양상 다시 분석
- 독서 '5분 짝기' 가다듬기



